



기나긴 선거전

2008년 미국 선거



U.S. DEPARTMENT OF STATES /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미 국무부 / 국제정보프로그램국



통권 12권 / 제10호

국제정보프로그램:

코디네이터 Jeremy F. Curtin
실무편집인 Jonathan Margolis

제작총괄 George Clack
편집장 Richard W. Huckaby
편집실장 Anita N. Green
제작부장 Christian Larson
제작차장 Sylvia Scott
웹제작 Janine Perry
카피편집인 Rosalie Targonski
사진편집인 Maggie J. Sliker
표지디자인 Timothy Brown
참조전문가 Anita N. Green

표지 사진 2006년 대선에서 오하이오주의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전자 투표 기계를 사용하여 투표하고 있다.

미 국무부 산하 국제정보프로그램국은 <e저널 USA> 제호 아래 월간 온라인 저널을 출간하고 있으며 미국의 사회, 가치, 사상, 제도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매달 영어로 당월호가 발간되고 난 후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번역본이 후속적으로 게재됩니다. 필요에 따라 특정 호는 아랍어, 중국어 및 페르시아어로 번역·발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저널은 통권과 호수에 따라 분류됩니다.

본 저널에 실린 주장이나 의견들은 반드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본 저널에 링크된 인터넷 사이트들의 내용이나 액세스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그러한 책임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음을 밝혀둡니다. 본 저널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도표들은 저작권 제한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복제 또는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단 저작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본 저널상에 표시된 해당 저작권 소유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국제정보프로그램국은 최신 호와 지난 호들을 비롯하여 앞으로 발간 예정인 저널들의 목록을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usinfo.state.gov/pub/ejournalusa.html>).

본 저널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거주하시는 국가 주재 미국대사관이나 본지 편집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인
eJournal USA
IIP/PUBJ
U.S. Department of State
301 4th St. S.W.
Washington, D.C. 20547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메일: eJournalUSA@state.gov

이번 호에 대한 소개

179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자유가 있습니다. 2008년 선거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선거 후보자, 유권자, 여론 조사원, 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모든 문제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이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특정 이슈나 리더십 자질을 근거로 대통령을 선출할까요? 선거인단 제도는 여전히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선거 제도에 개혁이 있어야 할까요? 선거가 열리기 몇 달 전부터 정치 여론 조사를 통해 무언가 의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2008년 11월 선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선거 운동은 이미 한창 진행 중이며 대선 후보들은 벌써부터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선거 유세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여론 조사 결과가 자주 인용 보도되고 있습니다. 2008년 선거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정부 추진 정책 등에 대하여 한 표를 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유권자의 손에 의해 많은 것이 결정됩니다. 이번 호에서 여러 집필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중 누구도 출마하지 않는 선거는 8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치 문제 전문가 찰리 쿡과 제리 해그스트롬이 판세에 대한 자신들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가 발간되는 현재 18명의 대선 후보가 선거에 뛰어들 정도로 많은 후보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도 누가 승리할지 감히 점칠 수 없습니다.

대선은 이번 호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의 일부일 뿐입니다. 권력 분립을 지향하는 미국의 정부 시스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국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지가 판가름 납니다. 행정학 교수 L. 샌디 메이즐은 의회의 역할과 국회의원 선거가 가져올 영향을 설명합니다.

민주당 소속 여론 조사원 다니엘 고토프는 2008년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 및 현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가 선거철에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공화당 소속 여론 조사원 켈리안 콘웨이는 여성 유권자들에 대

한 시각을 제시하면서 이들이 다음 선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여성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알려줍니다.

선거 유세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세 명의 전문가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정치부 기자로 오랜 기간 근속한 짐 디킨슨이 선거를 취재하는 기자의 하루 일과를 1인칭 시점으로 들려줍니다. 인터넷 전문가 앤디 카빈은 시민 저널리즘, 블로그, 인터넷 기금 모금, 사회 네트워킹 사이트 등이 정치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2008년 선거철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론 조사원 존 조그비는 여론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의 가치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시스템은 완벽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이란 없습니다. 잔 위틀드 바란은 선거 유세 자금 조달과 관련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에 대해 소개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주(州) 단위 투표 시스템인 선거인단제도는 미국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시스템의 유용성에 대한 찬반 양론을 전문가 로스 K. 베이커와 제이미 라스킨으로부터 듣습니다. 미 선거지원위원회 전임 회장을 맡은 폴 S. 드그레고리오는 주 선거 절차 개선 노력에 대한 논의를 펼칩니다.

2008년 미국 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선거는 새로운 출발이며,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하여 자신의 신념을 위해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거 시스템은 아직 미완성 단계에 있지만, 의식 있는 미국인들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모임을 조직하고 유권자 등록을 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 자금을 기부하고 후보자와 함께 하는 커피 토론회를 주최할 수도 있으며 지역 선거 감시원이나 재판관이 되는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편집인



미 국무부 / 2007년 10월호 / 통권 12권 / 제10호
<http://usinfo.state.gov/pub/ejournalusa.html>

기나긴 선거전 2008년 미국 선거

6 인터넷이 어떻게 판세를 바꾸고 있는가?

앤디 카빈,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인터넷 전략가
정치 출마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혁신적인 방식으로 온라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10 새로운 투표 기술: 문제인가 해결책인가?

폴 S. 드그레고리오, 전직 미 선거지원 위원회 회장
전자 투표 시스템이 선거 행정에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많은 민주국가들이 모든 시민의 자유롭고 편리하며 안전한 선거를 도모하게 되었다.

14 생애 첫 투표

레베카 자이프만, 미 국무부 국제정보프로그램국
두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생애 첫 투표를 했던 경험과 투표가 그들에게 가지는 의미를 이야기해준다.

16 국회의원 선거

L. 샌디 메이즐, 메인 주 워터빌 콜비 대학 행정학 교수
미국 정부의 입법부인 의회는 대통령과 정책 결정권을 공유하며,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는 미국 정책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9 변화하는 미국 유권자

다니엘 고토프, 워싱턴 D.C. 레이크 리서치 파트너사 파트너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2008년 선거가 다가옴에 따른 미국인들의 우려, 신념, 감정 등을 엿볼 수 있으며 미국인들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미국의 여성 유권자

켈리안 콘웨이, 워싱턴 D.C. 폴링 컴퍼니사 회장 겸 대표이사
미국 선거권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일부의 선입견과는 달리 여성들도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여론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26 대선 취재: 기자단 버스에서 본 풍경

집 디킨슨, 워싱턴 포스트 정치부 기자
대선 후보와 함께 길을 나선 베테랑 기자의 생활을 아침 6시 출발에서 밤 11시까지 생생하게 그려냈다.

30 정치 여론조사: 왜 여론조사가 반드시 필요한가

존 조그비, 워싱턴 D.C. 조그비 인터내셔널 회장
여론 조사는 유권자의 표를 둘러싼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어느 후보인지만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의 가치관과 현안에 대한 우려 사항까지도 심도 있게 나타내준다.

33 새로운 출발

쿡 폴리틱얼 리포트의 편집인 겸 발행인 찰리 쿡, 내셔널 저널의 기고가 겸 편집인 제리 해그스트롬과의 인터뷰
두 명의 정치 전문가가 2008년 미국 대선의 독특한 양상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36 2008년 선거자금은 어떻게 조달될 것인가

잔 위틀드 바란, 워싱턴 D.C. 와일리 레인 LPP파트너
연방선거위원회는 정치 유세를 위한 기금 모금 및 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출마자들은 가용 자금 분배 방법 및 공적 자금 조달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2 선거인단 제도는 낡고 쓸모 없어졌는가

미국 대통령 선출 시스템인 선거인단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두 명의 학자가 토론을 펼친다.

선거인단 제도: 21세기에도 유용한 제도
로스 K. 베이커, 뉴저지 주 뉴브룬스위크 러트거스 대학 정치학 교수

선거인단 제도를 활용하여 미국 국민들이 전국 일반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자
제이미 라스킨, 메릴랜드주 상원의원 겸 워싱턴 D.C. 아메리칸 대학 헌법학 교수

47 참고 문헌

48 인터넷 자료 출처

온라인 비디오

- * A Fresh Start
찰리 쿡, 제리 해그스트롬과의 IIP 영상 대화
- * Local Governments Conduct All Elections in U.S.
VOA 뉴스 비디오
- * Presidential Candidates Show New Diversity
VOA 뉴스 비디오
- * Where Do Rural People Fit Into the 2008 Election?
지방 전략 센터(Center for Rural Strategies)의 비디오
(사용 허가 획득)

<http://usinfo.state.gov/journals/itdhr/1007/ijde/ijde1007.htm>

인터넷이 어떻게 판세를 바꾸고 있는가

앤디 카빈



사진 제공: © AP Images/찰스 다라팍
2007년 7월, CNN, 유튜브, 구글 공동 후원으로 사우스캘리포니아주 찰스턴 소재 시터들 사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대선 후보 마이크 그래블, 크리스 도드, 존 에드워즈, 힐러리 클린턴, 버락 오바마, 빌 리처드슨, 조셉 비덴, 데니스 쿠시이치가 노스캐롤라이나주 히커리에 살고 있는 레지 톱크라이어 목사의 질문을 듣고 있다.

지난 10년간 인터넷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일이 가능해졌다. 필자는 선거 출마자들과 (출마자들보다도 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하면서 정치판을 좌우하게 된 몇 가지 인터넷 혁명에 대해 논하고 있다. 앤디 카빈은 디지털 디바이드 네트워크(Digital Divide Network)사의 전(前)대표로서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서비스(Public Broadcasting Service)사의 러닝 나우(Learning.now)라는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다.

2008년 미국 총선은 분명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될 테지만 그것이 반드시 어느 특정 후보나 정책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최근 선거 과정에서 볼 수 있었듯, 선거 유세, 선거자금

모금, 시민 참여 등 여러 면에 있어서 인터넷이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선거 과정을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의 상당 부분이 선거 유세나 정치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중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이다.

인터넷 사용은 미국인들에게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가정, 직장, 학교 등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고 신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퓨 인터넷(Pew Internet)과 아메리칸 라이프 프로젝트(American Life Project)의 2007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미국 성인의 71퍼센트가 가정에 인터넷 접속 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50%에 가까운 성인들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미국 내 학교와 도서관들 대다수도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다. 접속의 용이성과 기술면에서는 교육과 소득 수준에 따라 아직 차이가 있고, 특히 노인, 장애우, 소수 민족 등 선거에 적극 참여하

지 않는 사람들은 신기술의 혜택을 덜 받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일반적인 추세로 볼 때에는 인터넷 보급에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미국 일반 대중들이 처음 인터넷 접속을 시작할 당시에는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콘텐츠의 상당수가 전문가 또는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인터넷을 통해 글을 올리는 데는 깔끔하게 다듬어진 콘텐츠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외에 전문적 기술도 필요했다. 특히 오디오나 비디오 콘텐츠 제작은 전문 미디어 업체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곤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에 일반인이 제작한 콘텐츠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웹로그'라는 자신만의 개인 저널을 만들어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더러 흥미로운 것들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로그 또는 블로그라는 아이디어에 영감을 얻은 일부 인터넷 개발업체들은 누구든 인터넷상에 손쉽게 텍스트를 올릴 수 있는 도구들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곧 나름대로의 고유한 용어를 창출해냈는데, 이와 같은 추세를 설명하는 데 가장 흔히 쓰인 것으로는 '웹 2.0,' '사회적 미디어(social media)' 등이 있다.

가상 커뮤니티

또한 인터넷 사용자 중 인터넷 커뮤니티 가입자 수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새로운 현상이 결코 아니었으며 이미 1970년대경부터 그룹 이메일과 온라인 게시판 커뮤니티가 등장해 있기는 했지만, 인터넷 사용이 점차 주류를 이루면서 인터넷을 통해 형성되는 그룹들 역시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신기술에 능숙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동네나 이웃들 간의 지리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나 취미 또는 직업군이 같은 사람들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등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블로그가 강세를 나타내게 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만의 블로그를 만들었다. 몇 년 새,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으로 불어났다. 얼마 되지 않아 블로거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정치적 이념이나 선거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대부대를 몰고 다니게 되었다. 또한 서로간의 상호 작용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툴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풀뿌리 온라인 커뮤니티(소위 말하는 '네티트')의 사례로서 가장 잘 알려진 것 중 하나는 2004년 대선 후보로 나왔던 하워드 딘이다. 언론과 정치판에서는 3류 후보 정도로 여겨졌던 하워드 딘은 블로그, 단체 이메일 유세, 온라인 커뮤니티 토론 등을 통해 엄청난 지지를 얻어냈다. 얼마 안 가서 전국의 수천 명으로부터 선거 자금 등 여러 형태의 정치적 지원을 받았다. 그의 온라인 프로필이 확대되면서 주류 언론사들도 하워드 딘을 다루기 시작했고, 그의 성공적인 선거 자금 모금과 네티트로부터 받는 인기에 주목하게 되었다.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를 무명 후보가 눈여겨봐야 할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결국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그

의 성공적인 인터넷 후원 조직 기술은 다른 정치적 대의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자 하는 진보주의 성향의 운동가들이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워드 딘의 선거 유세보다 먼저 시작되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네티트 캠페인도 있다. 가령, 샌프란시스코 지역 소프트웨어 회사의 창립자들은 1997년부터 친구와 동료들 대상으로 이메일을 써서 그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에게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에 대한 탄핵 소추를 중지하고 다른 정책 이슈로 '전진'해 나가기를 촉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러한 이메일 캠페인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친구와 동료들은 이메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캠페인은 이라크전 종전 등 주로 진보적 성향의 정치적 대의에 초점을 맞춘 항시적 공공 정책 조직으로 발전했다. '전진'이라는 뜻을 가진 MoveOn.org라는 이 조직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 활동 위원회 중 하나가 되었고, 수백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 위원회에 가입하여 이메일 기반 정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UGC와 사회 네트워크

200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2008년 선거 시즌에 등장할 현상을 미리 보여주는 두 가지 인터넷 트렌드가 있었다. 첫째,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뜻하는 UGC가 폭발적으로 생겨났다. UGC는 텍스트,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 아마추어가 만들어내는 모든 종류의 인터넷 자료를 가리킨다.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UGC를 꼽으라면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담 후세인 처형 자료화면을 들 수 있다.



사진 제공: ©AP Images/카메론 블로크
인터넷 비디오 공유 서비스 사이트인 유튜브가 미국 정치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측에서도 사형 준비과정을 담은 공식 비디오 자료를 내놓기는 했지만, 전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처형 장면을 지켜본 한 사람이 찍은 UGC였다.

유튜브(비디오용), 플리커(사진용)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유 전



사진 제공: © AP Images/로렌 버크
 민주당 전국 대회장에 주요 방송사 및 신문 기자들을 위한 좌석 옆에 블로그 운영자 전용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블로거 세상 (Blogger's Boulevard)'이라는 모임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2004년 정당 대회 때 처음으로 대회 현장을 생중계했다.

문 웹사이트 덕분에 인터넷에는 UGC가 넘쳐나고 있다. 2006년 퓨 인터넷과 아메리칸 라이프 프로젝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모종의 UGC를 인터넷상에 게시한 경험이 있으며 미국내 인터넷 사용자 7명 중 1명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선거 시즌에 UGC의 위력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는 소위 마카카 사건이라는 것이었다.

재선에 출마하여 유세를 펼치던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조지 알렌은 자신의 경쟁자인 짐 웹의 진영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S.R. 시다스라는 젊은이에게 계속 추적을 당하고 있었다. 시다스의 역할은 알렌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날 때 이를 비디오에 녹화하여 알렌의 공식 발언을 기록해두었다가 웹의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 해 8월, 선거 유세 방문 때 알렌은 유세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시다스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두 차레 그를 '마카카'라고 칭하였다. 인디안의 후손인 시다스는 알렌의 말을 비디오에 담아 유튜브 및 그 외 웹사이트에 올렸고, 이는 곧 수십만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눈에 들어왔다. 얼마 안 가서 그 비디오는 중요한 선거 운동 관련 이슈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영장류의 한 부류를 일컫는 '마카카'라는 단어를 인종 차별적인 의도로 사용했다는 비난이 알렌에게 쏟아졌기 때문이었다. 알렌은 이에 대해 사죄했고 그 단어가 자신에게는 경멸의 뜻을 가진 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1월, 알렌은 근소한 차로 선거에서 패하였고, 많은 시사 평론가들은 짐 웹이 알렌을 꺾고 선거에서 이기는 데 시다스가 촬영한 UGC가 한 몫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제2의 트렌드인 인터넷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성장이 없었던들 UGC는 인터넷 정치의 핵심 동력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인

터넷 커뮤니티는 인터넷 사용 후 초창기부터 존재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숫자와 규모가 급증하였고 직접 콘텐츠를 올리고 상호 교류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마이스페이스(MySpace), 페이스북(Facebook)등의 사이트는 십대 및 대학생들이나 사용하는 니치(niche) 커뮤니티에서 수천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인터넷 파워하우스로 성장하였다. 2007년 7월 입소스 주식회사(Ipsos Inc.)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터넷 사용자들 중 24퍼센트가 그 전 달에 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전체 인터넷 사용자 중 3분의 1이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선거 출마자들은 주요 사회 네트워킹 사이트에 자신의 개인 프로필을 올림으로써 이러한 트렌드를 잘 활용하였고 일부 출마자들은 선거 유세 광고 및 기타 멀티미디어 자료까지 업로드 시키기도 했다.

2008년도의 인터넷 혁신

2006년 선거는 2008년 대선의 서막에 불과했다. 바로 4년 전 대선이 있는 후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선거 유세를 위한 그룹 네트워크를 만들어 사회적 네트워킹을 시작했다. 특히 민주당 후보인 버락 오바마와 존 에드워즈가 이러한 도구를 잘 활용하여 지원 세력을 규합하고 선거 자금도 모금하는 등 대규모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양당 후보자들 모두가 참모들과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수단으로 인터넷 비디오를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동영상상을 통해 자신의 출마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대선 후보자들이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처럼 일반 대중들도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전혀 새로운 트렌드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 DIY(Do-it-yourself)사회 네트워크라는 용어는 2006년 가을까지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으나 그 후 얼마 안 가서 닝컴(Ning.com)같은 인터넷 도구 덕분에 누구나 틈새(niche)를 공략한 사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적은 자본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신인 후보는 물론 개인들도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넷북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사진 제공: © AP Images/찰스 다라팍
2003년 당시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팀장인 댄 바틀렛이 백악관과 미국 시민들을 직접 만나게 해주는 라이브 온라인 채팅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선거 자금 모금에 초점을 맞춘 사회 네트워크 개발도 있었다. 가장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Change.org라는 사이트이다. 원래 개인들이 자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였지만, 나중에는 사람들끼리 모여 정치적 대의나 선거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도록 그 구조가 재설계되었다. 가령 총기 소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이 사이트를 사용하여 비공식 정치 활동 위원회를 조직하고 자신들의 정책 입장에 동조하는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모을 수 있다. 적당한 선거 후보자를 고르지 못한

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다. 대중들이 웹 2.0이라는 인터넷 툴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이제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지를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라면 모인 돈을 제3자가 보관해 두었다가 관련 정당에서 후보를 지목한 후에 내줄 수도 있다. 후보자가 선정되어 인터넷 활동 모임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자금을 수령하면 Change.org는 지금 시민들이 해당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위해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라이벌 후보에게 편지로 알린다.

간단히 말해서, 2008년 대선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인터넷이 선거 후보자들과 미국 유권자들간의 상호 작용 방식을 영구적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1, 2위를 다투는 후보가 아니라도 선거 자금 모금에 성공할 수 있으며 선거 출마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메시지를 완

새로운 투표 기술: 문제인가 해결책인가?

폴 S. 드그레고리오



사진 제공: © AP Images/라즈쉬 쿠마르 싱
2007년 5월 인도에서 열린 선거 실시 전에 투표 담당관이 전자 투표 기계를 점검하고 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처럼 미국 역시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하고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개선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선거 전문가인 필자는 전국적으로 투표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하고 현대 기술이 선거 행정에 접목됨에 따라 생겨난 전자 투표 시스템의 장래성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필자 폴 S. 드그레고리오오는 미국 선거 지원 위원회(U.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의 전직 위원장이며 20여 개 국에서 선거 전문가로서 22년간 활동해왔다.

지난 10년 간 전세계적으로 투표 절차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큰 민주국가인 인도 유권자들은 전자 버튼 기술을 사용하여 투표를 하는가 하면, 서반구 최빈국인 아이티의 유권자들도 투표 용지를 받을 때 사진과 지문이 들어간 현대식 신분증을 제시한다. 사실 에스토니아(스스로 E-stonia라고 칭하는 나라)의 유권자들은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스마트카드를 사용 중이다.

미국에서는 전체 투표의 90퍼센트 이상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시행, 집계된다. 모든 투표소는 장애인들도 독립적으로 비밀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 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덕분에



사진 제공: © AP Images/홀 뉴스 트리뷴/키스 뮤실리
HAVA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맹인 유권자도 이어폰을 꽂고 스크린이나 버튼을 눌러 프라이버시를 보장 받으면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전세계에서 이런 종류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등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는 유권자들도 이 신기술의 도움을 받는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투표용지가 8개국어로 제공된다. 신기술 덕분에 신체 장애나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의 투표가 한결 수월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선거 기술 중 대부분이 최근 10년 사이에 도입된 것들이다. 그리고 매년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여 사회 각계각층 국민들의 투표를 돕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이 더 많은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형편없는 투표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기술을 신뢰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새로운 골칫거리만 생기고 일부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이 개별 국가들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사안들이다.

미국 선거 절차의 개선

2000년 대선 당시 마지막 6주 동안 누가 대통령이 될지 도무지 짐치기 어려운 접전 상황이 벌어진 후 국내외적으로 선거 절차에 큰 관심이 쏠렸다. 편지 구멍이 불완전하게 뚫린 투표 용지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전세계적으로 회자되기까지 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이후 미국 선거 행정은 크나큰 변화를 겪어왔다. 2002년 미 의회는 HAVA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미국 선거 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을 통과시켰고, 이 법률은 미국내 50개 주, 워싱턴 DC, 그 밖의 미국 영토에서 선거 절차를 개선하는 데 전에 없이 강력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사실 미국의 200년 역사보다 최근 7년간 공포된 선거 관련 법률 및 규정이 더 많을 정도이다.

네덜란드, 영국, 일본 등 일부 국가처럼 미국의 모든 선거도 지방 단위로 실시된다. 즉, 선거 절차를 관장하는 이는 지방 공무원들이며 관할 구역내 유권자들이 어떠한 선거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에 관한 대부분의 결정을 지방 공무원들이 내린다.

HAVA의 실시로 주(州) 선거 관리 공무원들이 지방 단체를 감독,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당 의석수에 따라 선출된 주정부 공무원인 주정부 서기관(secretary)이 선거관리 총괄 역할을 맡는다. 뉴욕, 일리노이 등 일부 주의 경우 양당 통합 선거 위원회가 선거 절차를 감독한다. 미국은 지방 선거 위원회의 70퍼센트 이상이 초당파적인 방법으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독특한 선거관리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선출된 이들은 군 주사(county clerk), 군 감사관(county auditor), 선거 감독관(supervisor of elections) 등의 직함으로 활동한다. 그리고 4년마다 유권자로부터 선거 관리의 책임을 맡는다.

HAVA 법률에 의거하여 선거 행정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불러모으기 위한 미 선거 지원 위원회(U.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EAC)라는 연방 기관이 탄생하였으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기금에서 30억 달러 이상을 받아 선거 절차 개선에 사용하였다. 2003년 후반에 활동을 시작한 EAC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미 상원의 비준을 얻은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화당에서 2명, 민주당에서 2명씩 선발된다. 필자는 EAC 초대 위원 중 한 명이었으며 2006년 동 위원회 의장직을 맡은 바 있다.

기금 배분 외에도 EAC는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벤치마킹 중인 선거 기술 활용을 위한 신기준을 설정하였다. 국립과학기술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EAC는 보안과 인간 요소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선거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설립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주마다 선거 때마다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장치의 안정성과 사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또한 EAC는 선거 기술의 관리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선거 관리 공무원들이 논리와 정확도 테스트 등 전자 투표 시스템의 주요 요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서 자료를 작성 중이다. 최근 몇 년간 유럽위원회(Council of Europe)에서도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전자 투표 장치 사용을 도입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전자 투표 시스템을 위한 유사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모든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아마도 새로운 선거 기술을 선거관리원들과 유권자들에게 교육시키는 일일 것이다. 선거관리원들의 평균 연령이 72세나 되는 미국에서는 계속 체크하고 이동시켜야 하는 컴퓨터 메모리 카드가 장착된 전자 장비의 도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선거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리원의 숫자가 130만 명이나 모자라게 되었다. 어쩌면 미국도 벨기에처럼 18세 청소년까지 선거 관리에 동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래에는 인터넷 투표가 가능해질까?

전세계적으로, 혹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하

면서 전자민주주의(e-democracy)라는 개념이 급속도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민간 분야에서처럼 선거 출마자, 정당, 정부도 자신들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7년 5월 영국 스윈든에서 열린 지방 선거에서는 '에브리원 카운트 (<http://www.everyonecounts.com>)'라는 회사가 개발한 보안 기술을 사용하여 유권자들이 전화, 인터넷, 공공 도서관 시설물, 우편, 종이 투표 용지, 지역 각지의 65개소에 설치된 300개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영국 정부가 지원한 투표 절차 혁신 중 가장 야심적이고 성공적인 것이었다.

글로벌, 모바일 시대에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나라의 국민이든 선거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 가을 호주 군대 소속 유권자들은 인터넷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약 6백만 명의 미국 시민들도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번거로운 우편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 투표 재단 (<http://www.overseasvotefoundation.org>) 및 EAC의 통계에 따르면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한 해외 거주 미국인들 중 4분의 1 이상의 투표 용지



사진 제공: © AP Images/폴 사쿠마
연방 투표권 법(Voting Rights Act)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산 호세 투표소에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표기된 간판이 세워져 있다

가 집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 투표 지원 프로그램 (<http://www.fvap.gov>)이 해외 부재자 투표 절차 개선에 기여하기는 하였으나 미 정부 책임 사무소(<http://www.gao.gov>)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메리칸 아이돌(American Idol)에서 4 시간 동안 실시한 투표의 참가자 수(7천 3백만)가 2004년 대선 승리자의 득표 수(6천 2백만)보다 많은 현 상황에서, 아메리칸 아이돌 투표에 참여한 젊은 세대들이 성장하여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선거 방식을 도입해줄 것을 요구하게 될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선거에서 신기술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 투표에 대한 검열 및 회의론도 대두되었다. 미국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선거권 행사를 위해 전자 투표 장치를 사용해왔지만 HAVA 법안이 통과되고 미국 및 세계 전역에 전자 투표가 확산된 후에야 투표 용지상의 기록도 없이 전자 투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다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단체들(<http://www.verifiedvoting.com>)이 생겨났다. 투표 용지 수동 계산에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아일랜드에서도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자 투표 도입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유럽 안보협력기구(<http://www.osce.org>)내 민주주의 및 인권 사무

소, 국제 선거 시스템 재단 (<http://www.ifes.org>), 카터 센터 (<http://www.cartercenter.org>), 일렉션라인(<http://www.electionline.org>) 등 국제 기구 및 선거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련된 여타 단체에서는 전자 투표로 실시되는 선거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해왔다. 사람의 손으로 투표 용지를 세는 일을 감시하는 것과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투표 집계 모니터링은 서로 전혀 다른 작업이다.

전체 민주주의 제도를 혁신하고 있는 새로운 선거 기술은 분명 유권자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선거 참여율을 높였고 많은 경우 선거 결과를 조작할 기회가 생기기 전에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투명성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그만큼 높아진 것일까? 이 질문은 선거 개혁 및 신기술 활용에 대한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짐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신기술 덕분에 우리의 일상 생활이 나날이 개선되고 있



사진 제공: © AP Images/해리 캡럭
2006년 11월 오스틴 시의 트래비스 카운티 법정에서 텍사스 주지사의 아내 아니타 페리가 일찍 부터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는 것처럼, 투표 방식 또한 끊임없이 개선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애 첫 투표

레베카 자이프만

두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투표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처음 투표소에 나서는 기분이 어땠는지를 설명한다. 필자 레베카 자이프만은 미국무부 국제정보프로그램국 소속 작가이다.

민 주주의 사회에서 투표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 18세가 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투표할 권리가 주어진다.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투표 용지를 던지는 순간은 일종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고 정치적 결정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여기 두 명의 유권자-이제 막 투표 가능 연령에 도달한 학생과 최근 귀화한 미국 시민-이 처음 투표소에 나섰던 때를 회고하고 있다.

조안나 피서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 지방 출신의 20세 대학생으로서 일년 중 아홉 달을 메인주 워터빌에 있는 학교에서 지낸다. 2005년 메인주의 기표소에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했다.

피서는 기회가 주어지는 즉시 자신이 투표권을 행사하리라는 사실을 늘 믿어 의심치 않았다.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 즉시 유권자 등록을 하러 갈 거라고 늘 생각했어요. 정치라든가 주변에서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던 것 같아요."라고 피서는 말한다.

선거권을 가질 나이가 되기 전에도 피서는 이미 정치 활동에 참여했다. 2004년 대선 때 그녀의 나이는 17세로 투표 가능 연령에서 딱 한 살이 모자랐다. 투표를 못하는 대선 피서는 미국 상원의원 후보였던 얼스킨 보울스의 선거 진영에서 일하며 샬롯에 지방의 집집마다 전단지 뿌리고 다녔다. 학교에서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선배들의 유권자 등록을 도왔다.

"그 선거는 제게 무척 중요했고 비록 저는 투표를 할 수 없었지만 많은 일을 했어요."

피서의 말이다.

18살이 되었을 때 피서는 유권자 등록을 했다.

"부모님들께서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실 필요도 없었어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2005년 11월 8일, 조안나는 유권자 등록을 마친 지 몇 분 뒤 그녀 평생의 첫 투표 용지를 던졌다.

"그냥 워터빌 지방에서 하는 선거였어요. 시장, 시 의원 등을 뽑는 그야말로 지방 행사였죠. 저는 [신분 확인을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갔어요. 등록하는 데 3분이 걸렸고 그 다음에 투표를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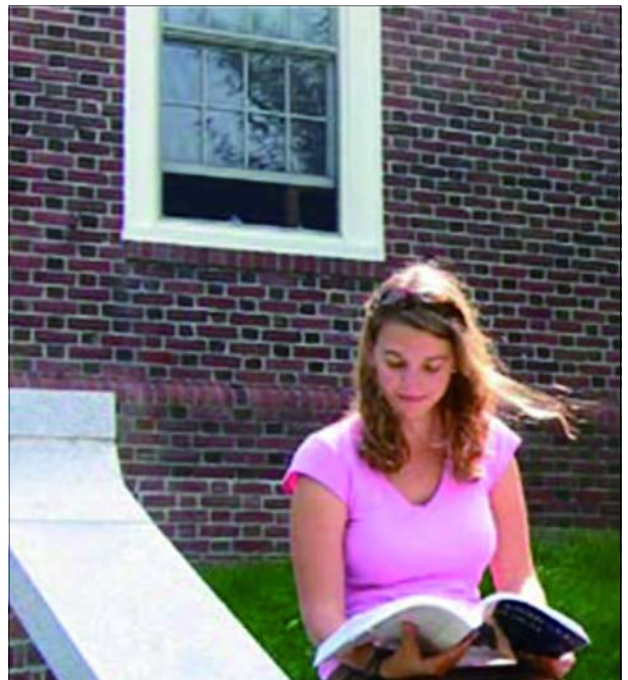


사진 제공: 조안나 피서
생애 첫 투표를 실시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출신의 조안나 피서. 사진 배경은 그녀의 대학 기숙사.

그렇게 첫 투표를 마친 뒤 벌써 피서는 한 번 더 투표를 했는데, 그때는 2006년 11월 주지사 선거 때였다. 이제 그녀는 2008년 선거를 고대하고 있다.

"대선 투표는 처음 하는 거라서 무척 흥분돼요.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일인 데다가 우리 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중요한 일니까요."라고 피서는 말한다.

올해 23세인 말라비카 자가나단은 생애 첫 투표를 하는 데 대해서 비슷한 흥분을 느꼈다.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지방에서 그린베이 프레스 신문기자로 일하고 있는 자가나단은 직업상 선거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도 자신이 직접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다.

원래 인도 방갈로르 출신인 자가나단은 1995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 텍사스 주 칼리지 스테이션에 정착했다. 어려서부터 그녀의 가족은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가족의 여권은 비록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재 속해 있는 사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어머니



사진 제공: 말라비카 자가나단
 새로 미국 시민이자 유권자가 된 그린베이 신문사 기자 말라비카 자가나단의 뉴스를 작업 풍경.

는 늘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자가나단은 말한다.

피셔처럼 자가나단도 선거 연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정치에 참여했다. 고등학교 때 자가나단은 민주당과 녹색당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전단지 돌리고 학교에서는 유권자 등록 운동을 벌였다. "작은 부스를 설치하고 일을 했지만 정작 저 자신은 유권자 등록을 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자가나단의 말에 따르면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로 하여금 정치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한다.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 기여할 수는 있었죠.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2006년 12월 14일, 자가나단은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그 다음날 그녀는 그린베이 시청에 찾아가 "당신은 미국 시민입니까?"라는 질문이 적힌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받고 "예"라는 상자에 체크를 했다.

다음 선거까지는 거의 두 달이나 남아있지만 자가나단은 벌써부터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에 대해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다녔으니 우선 제일 먼저 유권자 등록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죠."라고 자가나단은 말한다. 두 달 뒤 자가나단은 몇 가지 지역 안건에 대한 투표에 참여했다.

"정말 흥분되는 순간이었어요. 투표소는 집 바로 근처에 있는 교회였고 키 작은 할머니들께서 투표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평생 처음으로 투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들도 같이 기뻐해 주셨어요."

기자로서 몇 차례 선거 관련 기사를 쓰고 정당 활동에서 자원한 후 드디어 유권자로서 참여하게 되어 자가나단은 마음이 놓였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었고 특히 2006년 11월 선거 때 그냥 앉아서 선거 기사만 쓰고 참여는 할 수 없어서 가슴이 아팠던 터라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어느 정도는 보상이 되었어요."라고 자가나단은 말한다.

그녀가 투표했던 후보들 모두가 그날 선거에서 승리하지는 않았지만 자가나단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노라는 다짐을 했다.



사진 제공: © AP Images/링빙 항
 모건타운 소재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의 학생들이 공화당지지 대학생 포스터를 펼쳐 들고 있다.

"제가 뭔가의 일원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워낙 오랫동안 원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그 중요성을 더 절실히 깨달은 거였겠죠."

자가나단의 말에 따르면 새로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은 미국 태생의 시민들보다 투표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수가 있다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얻게 되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자가나단의 말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L. 샌디 메이즐



사진 제공: ©AP Images/로렌스 잭슨
2006년 7월 이라크에서 돌아온 국회의원들이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간담을 가진 뒤 기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에게 있어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글은 미국 의회의 구성, 의원 선거에 작용하는 요소들, 2008년 선거가 미 정부 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다루고 있다. L. 샌디 메이즐은 메인주 워터빌 소재 콜비(Colby) 대학의 행정학 교수이다.

2008년 11월 4일에 투표소로 향하는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435명 하원의원 전체와 상원의원의 3분의 1도 선출하게 된다. 주요 초점은 대통령 선거에 맞춰지겠지만 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미국 헌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체제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정책 결정을 내린다. 늘 같은 정당이 대통령직과 의회를 장악하고 정당 소속 의원들은 당 지도층의 뜻을 따르도록 훈련되어 있다면 권력 분립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민들이 선출하는 연방 정부의 두 조직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 있

고 (즉, 미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은 행정부내의 직위를 겸할 수 없고) 두 가지 선거가 같은 날 치러지기는 하지만 서로 별개의 절차를 통해 선출된 인물들이 직위를 맡게 된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는 권력 분립을 이루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각각 다른 정당 출신으로 선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어떤 정당이 백악관을 점령하고 다른 정당은 의회 상하원 또는 상원과 하원 중 하나를 장악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이런 상황은 흔히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분리된 정부'라고 표현한다. 게다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은 재선 당선을 위해 당 지도층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을 선출한 지역구의 이익이 당의 입장과 상충될 때에는 지역구를 위해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표출하는 경우도 많다.

의회의 구성

의회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원과 상원이 그것이다. 하원은 빈번한(격년) 선거를 통해 비교적 작은 행정 구역에서 일반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집단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는 53석의 하원 의석을 갖고 있다. 인구가 가장 적은 7개 주의 경우 각각 하나씩의 의석만을 갖고 있다.

상원은 주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만들어진 단체이다. 각 주는 인구와 관계없이 두 명의 상원의원을 둔다.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상원의원의 3분의 1이 재선에 출마하도록 임기 시작 시기를 엇갈리게 한다. 원래 상원의원은 주 의회에서 선출하다가

1913년부터 일반투표로 선출되기 시작했다. 제도를 처음 만든 사람들은 상원의원이 간접 선출되어 더 오랜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대중의 동요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 생각이 과연 오늘날에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이다.

상원과 하원은 동등한 힘을 갖지만 상원 의석이 하원 의석보다 좀 더 격이 높은 것으로 보통 생각한다. 선거구도 더 크고(상 하원 의석 수가 동일한 인구가 가장 적은 7개 주 제외) 임기도 더 길며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도 더 많이 받는다.

상원과 하원 선거는 같은 규칙에 따라 진행되지만 주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 민주당, 공화당, 주 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소수당은 예비 선거를 통해 후보를 지명하고, 무소속 후보는 청원을 통해 입후보한다. 11월 총선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수를 올리는 후보자가 당선되며, 과반수는 필요하지 않다.

의원 선거의 요소들

의원 선거를 결정하는 데는 세 가지 기본 요소들이 있는데, 지역구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 현직 의원의 존재 여부, 당시의 주요 이슈가 그것이다. 미국의 정치 제도는 서로 경쟁하는 양당제로 설명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19세기 중반부터 미국 정치판을 주도해 왔다. 최근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인물들의 99퍼센트 이상이 민주당 또는 공화당 출신이었다. 1지역구 1대표제와 최다 득표자 선출 제도를 운영하



사진 제공: © AP Images/일레인 톰슨
워싱턴 주 시애틀 시민인 캐시 로제스가 교육 안건을 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청원서를 모으고 있다.

는 시스템에서는 양당제가 유리하다. 비례대표제에서라면 이득을 볼 수 있는 제3의 정당 출신이나 무소속 후보는 최다 득표자를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은들 소용이 없다.

최근 몇 십 년 사이 국회의원 자리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치열해졌다. 그러나 모든 지역구 또는 모든 주에서 경쟁이 치열한 것은 아니다. 어떤 지역구나 주의 경우는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가령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대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는 반면 와이오밍주에서는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는 식이다. 예외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구 또는 주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당 성향을 파악하지 않은 채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정치가는 없을 것이다.

선거 결과는 현직 의원의 존재 여부로 설명되기도 한다. 지난 30여년간 재선을 노린 현직 하원의원의 95퍼센트가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현직 상원의원 역시 재선에서 승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많은 의석이 그 정당을 바꾸는 선거에서조차도 현직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의석에서만 당 교체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요소가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상원 또는 하원 출마 희망 후보가 정당의 지명을 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역구에서 현직 의원이 후보로 출마하지 않는 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리라면 각 정당의 지명을 받기 위해 많은 후보들이 줄을 설 것이다. 어느 한 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구 출마를 위해서는 해당 정당의 지명을 받기 위해 접전이 벌어질 테지만 그 외의 정당의 지명을 받고자 경쟁이 벌어지지 않는다.



사진 제공: © AP Images/H. 럼프 Jr.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이라크전 참전 용사 패트릭 머피가 2006년 중간 선거에서 의석을 얻기 위한 유세를 펼치고 있다.

끝으로, 현직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해당 후보는 심각한 경쟁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적으며 그 후보가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지도층은 출마하겠다는 사람을 찾느라 고전을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 가설은 상원보다 하원의 경우에 더 잘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상원 의석이 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선거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도 더 어렵기 때문이다.

2008년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이라크전, 테러, 이민 정책, 에너지 의존도 등 국가적 이슈가 선거판을 뒤덮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앞서 언급한 국가적 이슈가 11월 선거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는다면,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점할지도 모른다.

통치 구조에 미치는 영향

2006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 미국 정부는 둘로 쪼개진 모습을 보였는데, 공화당은 백악관과 행정부를 장악하고 민주당은 상하원을 점

령하는 식이었다. (상원에서 민주당의 우위는 아주 근소한 차이이기 는 하다.)

현재 공화당원이 2008년 선거에서 경합을 벌이게 될 상원의석 34 석 중 22석을 점유하고 있다. 민주당이 소수 의석을 선거에서 빼앗아 간들 상원에서 절대 다수를 획득하지는 못할 것이다. 상원 규정에 따르면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을 위해서는 60표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그만한 의석을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하원 의석을 30개 정도 더 가지고 있다. 많은 현직 의원의 출마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약 25명의 하원의원이 이번 임기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현직 의원이 비워놓게 될 의석들 대부분과 2006년에 공화당원으로부터 의석을 물려받은 민주당원들이 상당수 점유하고 있는 그 밖의 25석을 놓고 2008년 선거에서 열띤 접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 경합에서 민주당이 다소 우위를 점하면서 의회 장악도를 약간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의회의 결정을 좌지우지 할 만한 의석 수 확보는 역시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 2008년 공화당원이 대통령직을 맡는다면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맞닥뜨려야 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자신의 소속 정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와 더불어 국정을 운영하게 되겠지만 주요 정책 안건 결의를 좌절시킬만한 충분한 힘이 공화당에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권력 분립, 상당한 경제와 균형, 국정 의 흐름보다는 현직 의원의 힘이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주로 결정하는 정치 시스템에서는 국가 정책의 변화가 더디게 일어난다. 이것은 헌법을 만든 미국의 아버지들이 의도한 바이기도 하다. 핵심 이슈들이 2008년 대선을 장식할 것이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신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행동을 추진해나갈 수 있겠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은 그것이 허울 좋은 말장난이 아니라면 매우 더딘 변화를 겪게 되는 수가 더 많을 것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국의 유권자

다니엘 고토프

최근 선거 여론 조사를 보면 2008년 대선을 준비하는 미국 시민들의 우려, 신념, 감정을 읽을 수 있다. 유권자들은 테러 위협에 대한 불안감, 국내 사안에 대한 회의주의, 정부 개혁에 대한 관심 등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 측 여론 조사원은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호응을 하지 않던 미국 유권자들이 이제는 현 상황 고착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니엘 고토프는 워싱턴 D.C.에 소재한레이크 리서치 파트너(Lake Research Partners) 소속 파트너 연구원이다.



사진 제공: © AP Images/에드 안드리에스키
콜로라도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유권자 등록 및 투표권 쟁취 운동을 위해 자금 모금에 힘쓰고 있는 정치 활동가.

2008년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미국 유권자들은 전에 없던 격변의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다. 여론 조사를 보면 미국은 국민들 과반수가 반대하는 전쟁을 감행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거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 다른 테러 공격에 대한 공포가 대중들의 의식 속에 여전히 잠재해 있다. 이러한 국민적 불만 상태는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이 퍼져가는 한편 미국 정부처럼 강력한 조직만이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맞물린 채 번져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정치적 흐름의 변화를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측도 절대 다수의 지지를 차지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수십 년 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가 국가 원수 직위에 대한 출마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격변의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호응을 하지 않던 미국 유권자들이 이제는 현 상태 유지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현재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국민 중 19퍼센트만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십 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1997년 7월의 경우, 미국 국민의 44퍼센트가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답했으며 40퍼센트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 있다고 답했다.) 지금은 자그마치 68퍼센트가 나라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 있다고 생각한다.

유권자들간에 널리 퍼져 있는 불만 상태로 인해 국내외 안보 개선, 국내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균등한 번영 구가, 정부가 마땅히 봉사해야 할 국민에 대한 책임감 증대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있어 변화를 갈망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게 되었다.

테러 및 안보에 대한 국민적 불안

지난 몇 달간 유권자 심리가 급변했음에도 정치 현실은 2008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마 가장 두드러지는 일이라 할 수 있을 2001년 9·11 테러와 그 여파가 우리 시대의 흐름 및 정치를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본능적 불안감으로 인해 9·11 테러 이후 있었던 세 차례의 연방 선거는 주로 안보 문제에 무게를 두었다.

지난 두 차례 선거 때 있었던 투표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04년에는 유권자의 19퍼센트가 테러를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20퍼센트를 차지한 경제 문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마찬가지로 2006년에도 미국 유권자의 72퍼센트가 테러를 정치인 선출에 있어서 중요 이슈로 꼽았다. 그리고 최근 2006년 9월 ABC 뉴스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미국 국민들의 4분의 3에 가까운 숫자(74퍼센트)가 미국에 심각한 테러 공격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했고, 29퍼센트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포의 강도가 9·11 테러 이후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우려 수준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9·11 테러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01년 10월, 미국 국민의 81퍼센트가 미국 영토 내에서 또 다른 테러 공격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41퍼센트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라크 침공 이후 전쟁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커지면서 안보 및 테러를 보는 관점이 더욱 복잡해졌고 정치적으로도 모호한 이슈가 되었다. 2002년 10월 미국 국민들은 47퍼센트 대 24퍼센트, 즉 23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테러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2008년 미국 유권자들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자리잡게 해줄 신뢰할 만한 후보를 선출할 것이다.

국내 문제에 대한 회의론 증가

이라크와 테러가 뉴스 머릿 기사를 장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실제로 2006년 투표소 여론 조사를 보면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와 국가 안보, 이라크, 윤리에 대한 우려가 비등한 수치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선거 결정에서 다양한 이슈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미국 국민의 82퍼센트가 경제를 지극히 중요하거나(39퍼센트) 매우 중요한(43퍼센트) 문제로 꼽았다. 이에 반해 74퍼센트가 부패 및 윤리 문제를 중요하다고 꼽았으며('지극히 중요하다'는 41퍼센트), 67퍼센트가 이라크 문제를 중요하다고 꼽은 반면('지극히 중요하다'는 35퍼센트) 72퍼센트는 테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지극히 중요하다'는 39퍼센트).

2006년 선거 이후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욱 첨예해졌다. 미국 국민의 3분의 2(66퍼센트)가 국내 경제 사정을 그저 적당하거나(43퍼센트) 열악하다고(23퍼센트) 평가했다. 5퍼센트만이 경제 상황이 훌륭하다고 답했으며 29퍼센트는 양호하다고 답했다. 또한 미국인의 과반수 55퍼센트가 국내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28퍼센트는 경제가 현상 유지 경로를 걷고 있다고 답했으며(낙관적 진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16퍼센트만이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인들의 경제에 대한 우려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다. 보수가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여전히 주요 이슈이기는 하지만, 점차 증가하는 생활비를 맞추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 노동자들의 현 상황에서는 저렴한 의료보험 제도가 유권자들 사이에 제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개인적으로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경제 이슈를 고르라는 질문에서 29퍼센트를 차지한 가장 많은 답변자가 증가하는 의료비를 꼽았는데, 이는 세금 증대(24퍼센트), 정년 보장(16퍼센트), 실업(11퍼센트), 육아 및 학비(10퍼센트) 등 여타 답변보다 높은 수치였다.

저렴한 의료 보험 제도를 아메리칸 드림의 주요 축 중의 하나로 여기는 미국인들은 이제 치솟는 의료보험료가 중산층 생활을 영위하



사진 제공: © AP Images/마이크 칼슨
2006년 2월 플로리다주 탐파항에서 부시 대통령이 전세계 대테러전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고자 하는 가족의 바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권자들은 의료보험료가 창업에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민들 중 48퍼센트가 창업을 꿈꾸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로서는 중요한 조사 결과라 하겠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의 저임금 근로자들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된 미국 노동자들은 세계화가 가져다 주는 이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 국민들의 65퍼센트가 미국과 다른 나라간 교역 증대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면이 많다고 보고 있다. 미국 국민들의 과반수인 56퍼센트가 교역 증대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얻고 있다고 답했던 1990년대 말과는 태도가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국민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50퍼센트가 무역이 미국 기업에게 대체로 해를 끼치고 있다고 답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 중산층이 더 이상 국가의 번영을 공유하지 못하고 소수 엘리트가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는 사이 중산층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생각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다. 투표소 여론 조사를 보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유권자들이 아

메리칸 드림에 대한 신념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권자들의 절반이 그저 먹고 살 정도만 벌고 있다고 답했으며 17퍼센트는 생계비를 맞추기도 힘들다고 답했다. 유권자들의 3분의 1(31퍼센트)만이 자신의 재정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인들의 자녀의 미래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인 견해를 갖게 된 점이다. 40퍼센트가 다음 세대 미국인들의 삶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으며, 28퍼센트는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고, 30퍼센트만이 다음 세대 미국인들의 삶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08년 미국 유권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약속을 실현시켜 줄, 다시 말해 경제적 번영과 기회를 근로자들도 공유하면서 자녀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신뢰를 가장 크게 주는 후보를 선출할 것이다.

변화와 책임에 대한 열망 증가

국내외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점차 커지면서 미국 정부의 근본적 개혁 욕구도 커지고 있다. 2006년 선거는 여러 면에서 정부의 책임 증가를 바라는 국민들의 부르짖음이라 볼 수 있었다. 유권자들의 4분의 3이 부패와 윤리를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 요소로 꼽았으며 여기에 두는 비중도 상당히 컸다. (41퍼센트가 '지극히 중요하다'고 여김)

이라크전이 지금 현직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를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도 유권자로부터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까지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겨우 31퍼센트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의회에 대한 지지도는 이보다도 낮은 21퍼센트로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이다. 간단히 말해서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선출된 지도층 모두에게 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국민들의 과반수인 56퍼센트가 '연방 정부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34퍼센트만이 '연방 정부를 다소 혁신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커다란 개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3퍼센트만이 '연방정부는 전혀 개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미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나라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정부 조직의 역할 증대를 원하고 있다. 52퍼센트가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단지 40퍼센트만이 '정부는 기업과 개인에게 맡겨두는 편이 나은 일까지 너무 많이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수치들은 약 십 년 전에 조사한 국민 감정 조사 결과(41퍼센트가 '정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답하고 51퍼센트는 '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와 정반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유권자는 진실로-더욱 냉소적이고 더 불안해하며 안정감을 잃어가는 상태로-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의 유권자는 미래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도 잃지 않고 있다. 21세기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세계 속에 설 자리를 굳힐 수 있는 지도자를 찾고 있다. 경험 많고 든든한 지도자의 손을 찾는 성향에 반하여 지금 미국 국민들 절대 다수가 요구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도 강력히 소망하고 있다. 이처럼 언뜻 보기에 서로 상충하는 리더십 자질을 조화시킬 수 있는-그리고 미국 시민들은 물론 전세계인들의 보기에든 미국을 개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가 2008년 대선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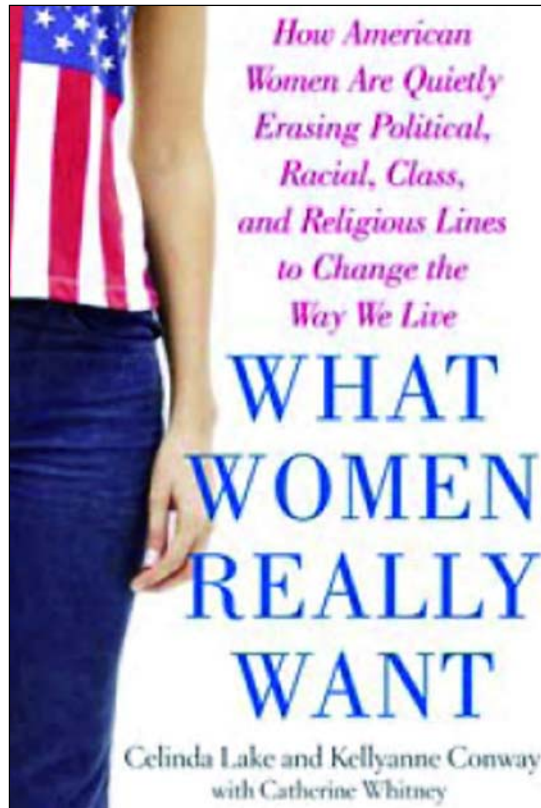


사진 제공: © AP Images/마크 험프리
테네시주 내쉬빌에서 열린 베트남 참전 용사 리더십 회의장에 참전 용사들의 투표를 촉구하는 브로치가 진열되어 있다.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유권자들

켈리안 콘웨이



자켓 디자인: 에릭 푸엔테실라
자켓 사진: © Stockbyte/Getty Images
2005년 켈리안 콘웨이의 저서 '여성들이 진정 원하는 것(What Women Really Want)'의 표지

미국 유권자 인구의 절반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40여 년간 이들 여성 유권자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왔다. 공화당 소속 여론 조사원 한 명이 여성들에게서 발견되는 투표 패턴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논하며 2008년에 발견될 여성 유권자의 몇 가지 부류를 설명하였다. 켈리안 콘웨이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폴링 컴퍼니(polling company)라는 회사의 회장 겸 대표이사이다. 이 회사는 여성 트렌드(Woman Trend)라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다.

미국의 보통 여성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수많은 책임, 호기심, 걱정애에 맞닥뜨린다. 이 중에서 그 자체가 정치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정치 및 정부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이 학교에서 잘 배우고 있을까? 이 동네는 안전한가? 내가 직장을 바꾸면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지나? 부모님 주택도 유지하면서 그분들 저축을 탕진하지 않

을 만큼의 연금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하는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

회고: 역사적 관점

1964년부터 투표권을 가진 인구의 과반수를 여성이 차지했지만, 표1에 나와 있듯이 1980년이 되어서야 투표권을 가진 여성들 중 실제로 투표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남성의 비율을 앞질렀다. 미국 내 극소수 여성들만이 선거직에 출마하거나 임명된다는(그리고 여성 대통령은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다는) 개탄의 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여성 유권자들은 80년 넘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공 정책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대통령과 그 선임자들을 선출해왔다.

여성들은 특히 대선의 경우 현직 대통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미지의 것을 시도해보기 보다는 이미 익숙한 신뢰할 수 있는

표1
여성들의 투표 행동

	여성 유권자 투표율	남성 유권자 투표율
1980	59.4%	59.1%
1992	62.3%	60.2%
1996	55.5%	52.8%
2000	56.2%	53.1%
2004	60.1%	56.3%

브랜드를 고수하는 성향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재선에 성공한 세 명의 대통령은 재선 출마시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지지 기반을 넓혔다. 또한 여성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현직 의원을 선호하여 남성보다 투표 패턴에 있어 일관성을 보여준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들이 이처럼 현직자를 다시 뽑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존에 선출된 인물에 도전하는 여성 출마자들의 선거 패인이 되기도 한다.

정치가, 정당, 학자, 전문 컨설턴트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을 무시하고 대신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 또는 '부동표'에 관심을 둔다. 2004년 대선에서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여성 중 절반 이상(54.5퍼센트)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령대의 여성들은 40퍼센트만이 투표에 참여한 남성들에 비해 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연령대를 최고로 높여서 보면 65세에서 74세 사이의 여성 중 29퍼센트만이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같은 연령대의 남성 26.1퍼센트가 투표를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볼 만하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들이 가장 많이 꼽는 것은 '질병/장애(19.89%)', '바쁜 일과/다른 스케줄(17.4%)', '무관심(10.7%)', '후보자 또는 선거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9.7%)' 등이다. 맨 마지막 두 가지 답변을 제외하면 여성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자신의 개인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다른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여성 유권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사회보장, 의료, 교육 등 '그녀의'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반면 남성들은 전쟁, 경제 등 '우리의' 이슈에 더 관심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세 차례의 전국 규모 선거(2002년, 2004년, 2006년)를 보면 이와 같은 구분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및 2006년 중 여론 조사원들에게 여성 응답자들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투표 여부 및 선출 후보자를 결정하게 만든 것은 전통적인 '여성의 이슈'가 아니었다. 열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한 설문에서 1위를 차지한 답변은 이라크 관련 사안(22%)이었고 그 다음이 대테러전(15%)이었다. 도덕성/가족관 및 취업/경제가 각각 11%의 답변을 얻었고 나머지 6개 선택지는 표2에 나와 있듯이 한 자리 수의 답변만을 얻어냈다.

민주당 소속 여론 조사원 셀린다 레이크(Celinda Lake)와 필자가 공동 저술한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국 여성들은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꾸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묵묵히 정치, 인종, 계급, 종교의 벽을 허물고 있는가(Free Press, 2005년)'라는 책에도 나와 있듯이 여성들은 단일 이슈만을 고려하여 투표하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다양한 아이디어, 이슈, 개인, 인상, 이데올로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 논쟁거리가 되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은 마치 여성들이 선거일에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며 여성들이 투표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슈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끌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사실상 여성들의 투표 성향은 그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은 틈새(niche)에 박혀 있지 않다

정치 시스템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 혹은 투표 성향은 획일적이지 않다. 투표를 할 때 어떤 여성은 민주당원만 찍고 어떤 여성은 오

표2
2004년과 2006년 폴링 컴퍼니가 실시한 선거 후 설문 조사 결과

선거 당일 누구를 찍을지 결정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선거 당일 저녁 실제 여성들의 생각

2006	2004	
22%	16%	이라크사태
15%	23%	대테러전
11%	17%	도덕성/가족관
11%	16%	취업/경제
6%	3%	교육
6%	7%	의료/메디케어/처방약
5%	3%	세금
5%	N/A	낙태
4%	N/A	이민
2%	2%	환경



사진 제공: ©AP Images/테드 S. 워렌
12세 학생들이 스쿨 버스에 청원서 상자를 싣고 있다. 이들은 워싱턴 주 시애틀의 교육 자금을 늘리기 위한 국민 투표 실시를 희망하고 있다.

로지 공화당원만 뽑는 반면 또 다른 여성은 잠탕식으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인물과 정당을 이리저리 섞어서 선택할 수도 있다. 결국 여성 투표자들은 대통령으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가?'와 '저 사람이 나와 같은가?'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다. 첫 번째 질문은 전형적인 '거실' 테스트라고 볼 수 있다. 즉, 앞으로 4년 또는 8년 동안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 저 인물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복잡한 것으로서, 여성 투표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중요시하며 반대하거나 두려워하는 사안에 대해 해당 후보자도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미국 여성들의 인생 경험과 태도를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이분법적 방식으로 나눌 수는 없다. 여성들은 투표소로 향할 때 정치 이데올로기 이상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 유권자들이 속하는 인구학상의 범주는 물론 삶의 단계까지도 정치인들은 고려에 넣어야 한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폴링 컴퍼니의 여성 트렌드 부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인 '이브의 세 가지 얼굴'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48세 여성에게 해당될 법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삶을 통해 나타난다. 이 여성은 노동자 계층의 할머니일 수도 있고, 미혼이면서 아이가 없는 전문직 여성일 수도 있으며, 두 아이를 둔 유부녀일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 모든 여성들이 인구학상 같은 연령대와 성별에 속하지만 이들의 인생 경험은 서로 매우 달라서 현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정치에 여성에게 있어 동떨어진 별개의 분야가 아니다. 여성에게 정치란 자신의 인생 경험, 육구, 기대 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포괄적인 분야이다.

2008년에 주목해야 할 여성 그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여성 사업가: 미국내 여성들은 약 1천 40만 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1천 28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다. 미국 전체 기업의 75퍼센트가 고용인을 두지 않고 있지만 여성이 소유한 기업 중에는 놀랍게도 81퍼센트가 1인 근무 회

사 또는 '부부' 운영 체제로 되어 있다. 여성 소유 회사의 성장률은 모든 기업의 성장률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 미혼 여성: 결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미국 여성들이 있다. 현재 15세 이상의 미국 여성 중 49퍼센트가 미혼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54%)이 25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에 해당한다.
- 아직 아이가 없는 여성: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직장일을 하고 기존의 출산 연령을 지나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여성들 중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여성'의 수가 줄어들었다.
- 초로: 아직 자녀들이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여성들은 직함과 오랜 장수(생명 연장 탐구)를 바라며 해결책과 개선택을 요구한다.
- 소수 민족 여성: 현재 미국 거주자의 3분의 1이 소수민족이며 네 개 주는 이미 주민의 과반수가 소수 민족으로서 2025년경에는 이와 같은 주가 다섯 개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틴계 인구가 미국 인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동양계 투표자들의 증가 역시 눈 여겨 보아야 할 추세이다.
- Y세대 여성: 표3에 나와 있듯이 폴링 컴퍼니와 레이크 리서치 파트너가 공동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Y세대 여성(1979년 이후 출생자)의 대다수(54%)가 미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표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를 떠나서 Y세대 여성 중 절반 가까이(42%)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보다 불우한 사람들을 시간이나 돈으로 돕는 것'이라고 답했다.
- 제시된 다른 여섯 가지 선택지 중에서 오직 2퍼센트만이 '정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택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다음으로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16%)',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폭행을 막는 것(9%)',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것(8%)', '군 복무를 통해 나라를 수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4%)' 등을 꼽았다.

어떤 여성이 '나는 정치가 싫어'라며 몸서리를 친다면 그 말은 누가 학교를 운영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가르치며 미국 내에서 의료 혜택은 어떻게 제공되고 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며 나라가 안전하고 번영하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정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정치와 정부는 위와 같은 분야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반드시 여성들이 상호 작용을 하는 채널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2008년도 전망

2008년 대선 주자들은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대선의 변수는 여성 후보일지도 모른다. 여성 대

표3

다음 중 미국 정치를 바꾸는 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만 선택)

- 54% 선거 투표
- 9% 정치 유세 참여
- 8% 대의를 위한 기부
- 7% 선출된 공무원에게 편지나 이메일 쓰기
- 7% 친구, 가족 등 내가 가진 사회 네트워크 동원
- 4% 선거직 출마
- 3% 선거 유세 자금 기부

령 후보에 대한 논쟁은 과연 가능할까가 아니라 언제일까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논의의 주제 자체가 어떤 가상의 여성 대통령이 아닌 구체적인 인물로 바뀌었다. 즉,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 후보를 찍었던 것은 아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여성이 유권자의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간단한 논리만 놓고 보더라도 미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돌과 캐롤 모슬리-브라운은 각각 2000년과 2004년 대선에서 당의 지명을 받았을 것이다. 2008년 대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최초가 많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여성, 흑인, 몰몬교도, 라틴계 미국인 등이 당의 지명을 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이 성별보다 중요한 요소임은 2007년 7월 뉴스위크의 조사에도 나와 있다. 동 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88퍼센트와 여성

의 85퍼센트가 자신이 지지하는 당이 여성 후보자를 지명한다면 그녀가 적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경우 그녀에게 한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자국 국민의 역량을 평가함에 있어 '여성 요소'에 대해 열정을 덜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60퍼센트와 여성의 56퍼센트만이 미국이 여성 대통령을 배출할 만큼 성숙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인종 요인의 경우, 백인의 92퍼센트와 유색인의 93퍼센트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흑인 후보를 지명할 경우 그의 자격이 충분하다면 그를 찍겠노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인종 때문에 선출을 망설이는 경향은 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 요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흑인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 수는 더 적었다. 백인 유권자의 59퍼센트와 유색인 유권자의 58퍼센트만이 이 나라가 흑인 대통령을 선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설문 조사에 응하는 유권자들은 때로 자신의 태도와 선입견을 친구, 가족,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투사하여 자신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허용할 수 없거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견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은 숨기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2007년에 두드러지는 흑인 후보와 여성 후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유권자들의 견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흑인'이나 '여성'에 대한 반대 의견이 실상은 개별 후보자에 대한 비호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다.

대선을 향한 경향이 최근 수십 년 이래 가장 널리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대선에 나서지 않는 것은 8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1980년대 이래로 쪽 그 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성은 대통령 집무실의 차기 주인을 결정할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선 유세 취재: 기자단 버스에서 본 풍경

짐 디킨슨



사진 제공: © Reuters/짐 버그
2004년 1월 아이오와주에서 선거 유세용 버스에 탑승한 언론사 기자단이 출발자의 사진 및 비디오 촬영과 질문 세례를 퍼붓고 있다

베테랑 정치부 기자가 미국 대선 주자와 함께 발로 뛰는 현장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며 출발자의 메시지를 미국 국민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 기자가 맡는 역할에 대해 논한다. 유세 기간은 길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선거 참모들과 고문단은 잘만 길을 들이면 유용한 정보 출처 역할을 해준다. 유세장 방문이 일상적인 일과가 되어버리기도 하지만, 프로 기자라면 예기치 못한 사건과 속보를 다룰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짐 디킨슨은 현재 은퇴한 전직 워싱턴 포스트 정치부 기자이다.

선 거 유세 기간 중의 긴 하루가 끝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일과는 소위 '바이블'이라 불리는 다음 날의 또 다른 긴 일정을 기자, 참모진, 고문단 등 모든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일이다. 기자들은 이렇게 뿌려진 일정을 비행기에서 내리는 도중에, 혹은 호텔 방문 틈 사이로 받아본다. 전형적인 하루 일과는 대충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 오전 6:15 로비에 짐 내려놓기
- 오전 7:15 후보 및 취재진 일행 호텔 출발 KXYZ-TV 방송국 향해 출발
- 오전 7:30 참모진과 취재진 일행, 8시 팜 레스토랑에서 있을 상공회의소, 로타리 클럽과의 조식을 위해 버스 승차
- 오전 7:45 KXYZ 방송국 아침 뉴스 앵커 조 스미스와 출발자간 5분 인터뷰
- 오전 7:50 KXYZ 방송국 출발 팜 레스토랑 향해 출발
- 오전 9:00 팜 레스토랑 출발 에버리 휴스턴 공항 향해 출발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수많은 행사에 따라 이동을 한다. 상공회의소 및 로타리 클럽과 조식 일정이 잡혀 있다는 것은 적어도 호텔 커피숍에서 아침 끼니를 대충 때울 만한 시간이 있을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선거 유세 기간 중 한 가지 철칙: 일정 때문에 끼니를 거르기 쉽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배를 채워라.) 그리고 KXYZ 방송국 담당 취재진이 인터뷰 내용을 적어 보내준다.

시공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전체 취재진이 다 들어가지 못하는 행

사에는 이렇게 담당 취재진이 들어간다. 취재진 중에는 일간지 기자, 텔레비전 기자, 잡지사 기자, 통신사(AP나 로이터) 기자 등이 포함되며 이들이 서로 차례를 번갈아가면서 취재를 담당한다.

바이블은 선거 참모진이 꼼꼼하게 작성한 하루 일정으로서, 이것을 보고 모두가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기자들마다 제각기 일의 우선 순위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게 마련이다. 어떤 것이 중요한 행사이며 그날의 기사 거리는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 기사를 작성해서 전송할 시간은 적합한 타이밍에 맞추어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가?

기자들 대부분이 회사의 위치, 뉴스 제작 스케줄 등으로 인해 기사 마감 시간이 제각각이다. 작업 중인 심층 분석 기사 작성에 필요한 인터뷰를 위해 적당히 건너뛰어 도될 행사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미국 대선 유세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분주하고 복잡한 무도회와도 같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길고 힘겨운 과정을 겪어 나가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힘든 일을 치르는 사람들도 있다. 가령 예비 선거에 서너 번 이상 출마하는 후보라면 하루 일정에 되도록 많은 행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전국에서 당원 집회가 제일 먼저 열리는 아이오와주, 예비 선거가 제일 먼저 열리는 뉴햄프셔 주 등 작지만 중요한 주에서는 유권자 하나 하나를 직접 만나 유세를 펼치는 '소매상식 정치 운동'이 필수적인 정도가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선거 유세 준비

선거 유세 취재를 위해 비행기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선거 참모진에 대한 조사를 한다. 용역 컨설턴트, 미디어 전문가, 여론 조사원은 누가 맡고 있는가? 명망 있는 전직 공무원, 활동가, 정책 전문가로서 큰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자원 고문단은 누구인가? 또한 선거 유세 전략도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전통적으로 예비 선거가 일찍 열리는 주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의 블록버스터급 주를 포함하여 수많은 주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2008년 2월 5일 '수퍼 예비선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바로 이날, 공식 선거일 9개월 전에 각 정당 대선 후보 지명자가 결정될 수도 있다.) 출마자가



사진 제공: © AP Images/로버트 F. 버카티
2004년 1월 아이오와주 데이븐포트에 도착 중인 선거 유세 버스를 텔레비전 카메라 기자들이 촬영하고 있다.

강세를 보이는 주와 약세를 보이는 주는 각각 어디인가? 각 주의 어느 지역에서 어느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어느 후보가 약세를 보이는가? 이 모든 세세한 사항들이 미국 국민들의 대통령 선택이라는 가장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이루어낸다.

이와 같은 선거 과정에서 취재진은 중요한 요소이다. 예비선거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당의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언론이 대선 출마자를 초기에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기자들의 역할은 출마자의 정책 방향은 물론 지성, 기질, 정직성, 판단력, 조직 능력, 설득력 등을 포함한 출마자의 인간 됨됨이, 대통령직에 대한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출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특히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을 상대로 한 대선 경합에서 승리한 사건을 담은 테어도어 화이트의 베스트셀러 '1960년 대통령 만들기(The Making of the President 1960)'를 발표한 후로 기자들의 위와 같은 역할이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정보원과의 협력

훌륭한 정보 출처가 되어줄 수 있는 선거 참모진과 컨설턴트를 포섭하는 일이 정부 기자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인격 평가, 인물 교섭, 외교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이기도 하다.

핵심은 선거 진행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며 이를 전달해줄 정보원을 찾아내는 일인데, 선거 진행이나 대통령



사진 제공: © AP Images/스텝안 사보이아
2007년 4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발표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아내와 함께 뉴햄프셔 주 포츠머스에서 콩코드로 가는 선거 유세 버스에 올라타 있다.

참모 중에서 위의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충성스런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보다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컨설턴트가 더 나올 수가 많은데, 이들은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음 선거 때에도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경력이나 선거에 대한 개인적 투자보다는 국가 정치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원 고문단을 나는 높이 평가한다. 과거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운동 당시 케네디가 대선에 나섰을 때 활동한 제대로 된 베테랑 정치 활동가와 알게 된 적이 있었다. 두어 번 밖에서 저녁을 먹고 몇 번인가 술자리도 같이 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는 선거 진영의 실수와 오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내가 기사를 제대로 쓰고 출처를 밝히지 않을 것으로 믿고 그는 나에게 선거 진영 뒤에 숨겨진 면모를 속속들이 말해주었다. 나는 그 정보를 기사화 할 수는 있었지만 그의 이름을 밝히면서 그 이야기를 인용하거나 그의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기사는 내가 썼던 최고의 선거 유세 분석 기사 중 하나가 되었다.

1988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할 때 남부의 여러 주가 대선 후보자 지명에 자기 지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같은 날 예비 선거를 실시한 소위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 예비 선거'를 취재하면서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앨 고어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었다. (남부에서는 앨 고어가 선전했지만 그 이후 북부 주에서 있었던 예비 선거에서는 제대로 지원을 얻지 못했다.) 앨 고어는 자신의 고향인 테네시 주의 어느 병원에 들렀는데, 그 병원은 새로 지은 최신킷 소아 병동을 갖추고 있었다. 그곳에서 당시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을 만

났고, 클린턴을 인터뷰하기 위해 병원 방문 취재는 포기하기로 했다.

이전의 대화를 통해 클린턴이 유능하고 친근한 정치 분석가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와 함께한 인터뷰는 결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이었다. 우리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중서부 지역 신문사의 친구에게 클린턴에 대한 기사를 주는 대신 병원 방문 취재는 그 친구에게 맡겼다.

예기치 못한 일을 예상하기

바이블에는 계획된 내용이 들어 있지만 반드시 터져 나오게 마련인 예기치 못한 수천 가지 사건들까지 예상할 수는 없다. 나는 언제나 예기

치 못한 일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어야 했는데, 이는 뉴스 비즈니스 종사자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이라크의 최근 동향, 이민이나 의료 보험에 대한 의회의 새로운 조치, 선거 자금 모금 때문에 당 예비선거에서 퇴출 당한 후보자 등등.

이러한 돌발상황이 때로는 환영을 받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기자나 편집자 모두 출마자의 전형적인 유세, 캠페인, 연설 따위에 신물이 나 있기 때문이다. 행사 때마다 새로 몰려드는 청중들을 위해 같은 이야기를 재탕 삼탕 반복하지만 신선한 뉴스거리나 심층 분석 기사의 소재를 찾는 기자들로서는 따분한 노릇이다. 과거 어느 유세에서 세 가지 주요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멋지게 보여주는 그날의 주요 유세 행사에서 내가 멋진 기사라고 생각한 것을 작성, 제출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기사가 자랑스러웠고 마감 시간 훨씬 전에 기사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 다음 행사장에서 내가 취재하던 후보는 자신의 라이벌 후보가 나뭇잎에서 발산되는 이산화탄소가 미국 동부 산림에서 발생하는 안개와 스모그의 원인이라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선거 유세 중에 펼쳤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환경 정책에 대한 중대 토론에 불이 붙었다. 그 다음 이틀 동안은 이에 대한 기사를 쓰느라 비지땀을 흘렸고 그 전에 공들여 썼던 기사는 내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이슈 때문에 지워져 버렸다.

노트북 컴퓨터, 무선 휴대 장치, 휴대폰 등의 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취재 현장에서조차 새로운 사건을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무선 장비 및 다른 언론사의 웹사이트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선거 참모진과 고문단을 따라다니며 새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반응을 캐묻지 않아도 대개의 경우 이메일로 미리 반응이 전해져



사진 제공: 짐 디킨슨
1972년 내셔널 옵저버(National Observer) 근무 당시 필자 짐 디킨슨(좌)과 편집자 라이오넬 린더의 모습

온다. 기사 마감 시간에 맞추어 현장에서 기사를 제출하는 일이 컴퓨터와 모뎀이 있기 전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휴대폰, 무선 인터넷, 고속 모뎀 등을 사용하여 기사, 메모, 배경 자료 등을 노트북으로 전송 및 접수하여 사무실 뉴스 데스크와 끊임없이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저녁 뉴스 시간에 맞추어 회사 본부로 필름과 테이프를 전달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는 악몽과도 같았던 텔레비전 뉴스 기자들로서는 인공위성 등의 신기술 덕분에 분명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그러나 신기술로 인해 일이 늘어난 면도 있다. 웹사이트와 라디오 방송국을 보유한 언론사의 기자들은 하루 종일 속보를 제출해야 한다. 누구도 이해 못한 기술적인 이유로 내가 일했던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 스타와 워싱턴 포스트의 초판 기사 마감 시간이 뉴스룸의 컴

퓨터화 이후 저녁 8 시에서 저녁 7로 앞 당겨졌다. 또한 뉴스데스크 입장에서 는 때로 바보 같은 기사 아이디어를 기자들에게 들이대며 괴롭히기가 쉬워졌다.

스스로 약해지지만 않는다면 괜찮은 생활이다.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밤 11시까지 저녁을 굶을 수 있는 젊고 튼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생활이다. 내가 젊고 정력적이었을 때 (대략 50세까지) 나는 이것이 나에게 활력을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뉴스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내게 해준 흔한 말 중의 하나가 '그것 참 재미있겠네요. 매일 새로운 것을 알게 되시잖아요.'라는 말이었다. 그러면 나는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곤 했다. 속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라고 생각하면서.....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 여론 조사: 왜 반드시 필요한가

존 조그비

1960년대 이후 여론 조사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 글에서는 여론 조사 전문가 존 조그비가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측정하는 것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가치관 및 감정을 밝히는 데에도 여론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한다. 필자는 워싱턴, 마이애미, 두바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뉴욕 유틀카 소재 조그비 인터내셔널 회장이다. 이 회사는 1984년부터 북미, 중남미, 중동,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여론 조사를 수행해 왔다. 필자는 질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다.



사진 제공: ©AP Images/제프 가이슬러
뉴멕시코주 산타페시에서 알폰소 마티네즈라는 시민이 주유를 하는 사이에 유권자 등록을 하고 있다.

‘선 거 여러 달 전에 미리 하는 여론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측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참고용일 뿐인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란이 무성한 이 마당에 미국 국민들(또는 미국 선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여론 조사 공해’의 희생자가 아닌가?-즉, 시중에 여론 조사가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지 않은가? ‘여론 조사 따위는 없어도 괜찮은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차례차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다.

필자는 질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다.

‘선거 여러 달 전에 미리 하는 여론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측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참고용일 뿐인가?’

초기 여론 조사의 가치에 대해 필자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비유는 2008년 11월까지 체중을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여러 달 동안 체중계를 멀리해야 할까? 아니면 자주

진전 상황을 측정해야 할까? 살을 빼려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치 전문가나 열혈 팬과 비슷하다. 이들은 자주 정보를 접하려 한다. 물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지정한 날짜에 목표를 성취하리라는 안심을 하지는 못하지만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진행 상황은 좀 더 애를 써야 할지 아니면 가끔 초콜릿 케익을 좀 먹어줘도 괜찮을지에 대한 근거가 되어준다.

초기 여론 조사는 단지 어느 후보가 선거전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당시 압도적인 이슈는 무엇인가? 이러한 주요 이슈는 변할 것인가? 이러한 이슈를 다루어야 할 것인가? 그 밖에도 초기 여론 조사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서를 반영한다. 국가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만족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는가? 이런 것들은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여론 조사는 선거 후보자가 파악하고 일반 대중이 느끼는 만족, 분노, 화, 좌절, 자신감, 심지어 절망감 등등의 양상에 과학적 요소를 더해준다.

여론 조사원들은 유권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단편적 감

정이나 순간적인 견해 이상의 것을 연구한다. 잘된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관을 규정한다. 가치관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뇌리에 박힌 신성 불가침의 것이다. 종종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조차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기도 한다. 동일한 유권자가 이라크전이 불필요한 죽음과 파괴를 일으키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태라고 느끼면서도 미국의 명예와 본질이 위협 받고 있다는 깊은 우려를 나타낼 수도 있다. 올바른 상징과 메시지를 만들어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내적 갈등을 극복하게 하는 것은 선거 후보자와 그의 전문 참모진에게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와 강조해야 할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 여론 조사가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지난 30년 동안 여론 조사 실시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정치 운동에서는 핵심 이슈에 대한 감정의 강도가 다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2008년 대선을 맞아 대두된 주요 이슈를 잠시 살펴보자. 무엇보다 제일 두드러지는 것이 이라크전이다. 유권자 5명 중 3명 꼴로 이라크전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고 있다. 2004년도에 주로 민주당원(80% 이상)과 많은 무소속 의원(60% 이상) 중에 반전 세력이 있었지만, 당시 공화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민주당 반대파 못지 않게 강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을 대테러전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신의 지지도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할 수 있음을 알았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유권자들이 공화당 소속 존 케리 상원의원보다 부시 대통령의 능력을 더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2005년에 들어서는 이라크전에 대한 공화당 보수파의 지원이 약해졌을 뿐 아니라 자유주의 진영과 온건 공화당원들까지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두 번째 핵심 이슈는 대테러전인데,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다. 2004년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되었을 때 국민들은 67% 대 24% 비율로 부시가 존 케리보다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2005년 민주당은 대테러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에 있어 공화당과 막상막하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8년으로 접어드는 지금, 민주당은 이 이슈에 있어 공화당에 대해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고 갈 만큼 강력한 지지를 유권자들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다.

지난 몇 차례 선거 시즌에서는 강도 높은 이슈가 '종교, 총기, 동성애' 등이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이라크전, 의료 보험과 같은 불안, 분노, 좌절 등의 매우 강력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이슈로 관심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우위를 잃을 수 있다.

2008년도에 핫이슈가 될 것으로 점쳐지는 것 중 하나가 이민 제도이다. 이 점에서도 여론 조사는 유익한 정보를 시사한다. 미국 국민들은 불법 이민에 반대하지만 이미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원하는 것은 보다 강력한 국경 경비이지만 미국과 멕시코간 국경 수비에 수억 달러를 쓰는 데는 반대한다. 그러나 이라크전과 마찬가지로 이 이슈 역시 다양한 조치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보내는 다수의 의견보다는 비교적 적은 수의 유권자들이 보내는 강도 높은 지지 또는 반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공화당은 이 이슈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의 대선 및 국회의 원 선거 후보들은 현재 미국 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여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 크고 보수적인 세력과 남쪽 국경에 벽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소외 당하고 있는 점증하는 라틴계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통계를 보자. 1992년 선거 당시에는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9천 2백만 유권자 중 4퍼센트를 차지했지만, 1996년에는 9천 5백만 유권자 중 5퍼센트, 2000년에는 1억 5백만 유권자 중 6퍼센트, 2004년에는 1억 2천 2백만 유권자 중 8.5퍼센트로 그 세를 넓혀갔다. 미국 선거권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2004년에 라틴 아메리카 표의 40퍼센트를 얻었을 때(2000년보다 5퍼센트 포인트 증가), 4년 전보다 더 커진 파이의 더 큰 몫을 챙긴 셈이었다. (이라크전, 경제 문제와 더불어) 주로 이민 문제 때문에 200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차지한 총득표수는 28퍼센트 감소하였다. 그리하여 공화당은 크나큰 패배를 맞보았다. 2008년 선거철에 대비한 조기 여론 조사에서 공화당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표심을 얻는 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이상, 공화당은 이민 문제를 앞에 두고 심각한 기로에 서 있다.



'여론 조사는 공해인가?'

1960년대에는 갤럽과 헤리스라는 여론 조사 기관이 있었다. 1970년대에는 주요 텔레비전 네트워크들이 주요 신문사와 함께 여론 조사 팀을 결성했다. 1992년만 해도 큼직한 여론 조사 기관은 몇 되지 않았다. 미디어와 독립 여론 조사 기관 측이 추측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믿을 수 있는 독립 여론 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면, 거짓 조사 결과를 유포함으로써 국민들을 오도하여 자기가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주장하려는 흉악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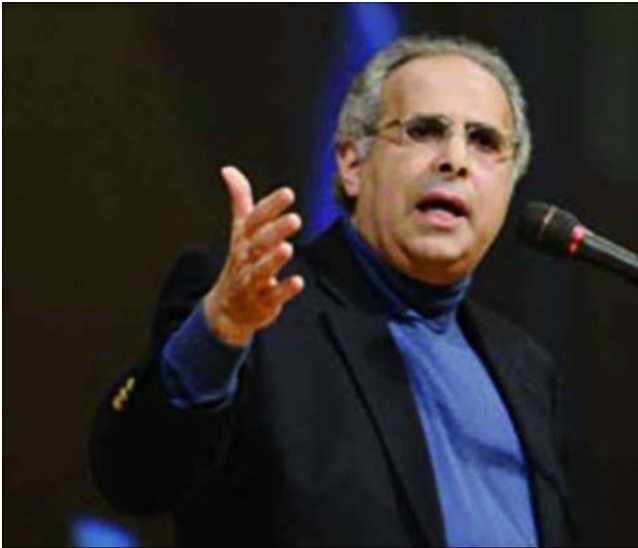


사진 제공: © AP Images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에서 국제 여론조사 전문가 존 조그비가 2008년 선거에서 리턴 아메리카계 유권자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역설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보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등 새로운 미디어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면서 여론 조사도 급격히 늘어났다. 2006년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독립 여론 조사 기관의 수만 해도 20개 이상이었으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스 미디어와 여론 조사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 국민들이 새로운 뉴스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와 더 많은 여론 조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견해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알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중들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서 단순한 친구, 동네 미장원이나 이발소, 편의점, 가족, 이웃 등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함께 호흡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여론 조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여론 조사원, 일반 대중, 언론 매체 등의 책임도 늘어나고 있다. 여론 조사 직종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국민들에게 여론 조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조사 기관이 '예언 행위'를 한다는 지적을 항상 듣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란 그 당시의 찰나적인 현상을 포착하고, 지표를 읽어내며, 일정한 척도에 따라 진전 상황을 체크하는 것뿐이다. 여론 조사를 실시한 시점과 선거가 열리는 시점 사이에 그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거 바로 전날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여론 조사는 완벽한 것이 아니다. 특정 인구 계층에 속한 사람들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표본을 취할 뿐이다. 따라서 표본 추출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밖에 오류를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도 있다.) 여론 조사 기관은 대

부분 전국 여론 조사를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표본 추출 오차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6포인트만큼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A라는 후보가 여론 조사에서 53퍼센트 득표율을 보였고 B라는 후보는 47퍼센트 득표율을 보였다면, A의 득표율은 50퍼센트에서 56퍼센트 사이이고 B의 득표율은 44퍼센트에서 50퍼센트 사이이다. 즉, 두 후보는 동점을 기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론 조사 기관은 선거가 박빙의 승부를 보일지 여부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조사 결과 나타난 수치를 근거로 한 예감이나 분석이 아닌 다음에야 선거 결과를 점칠 수는 없다. 또한, 여론 조사란 기본적으로 재미를 위한 것이지 예측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론 조사에 대한 건전한 회의주의를 일반 대중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 여론 조사는 선거의 생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므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조사 기관에서 내놓은 작업 산출물은 일반적으로 매우 정확하다. 2000년도에 우리 회사가 CBS 뉴스와 공동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앨 고어가 일반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다른 조사 기관에서는 당시 주지사였던 조지 W. 부시가 2~3포인트 차이로 우세한 양상을 나타냈을 때, 사실 둘 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었다.

끝으로 언론 매체-특히 방송 매체-가 표본 추출 오차, 질문지 문장 구성, 그 밖에 여론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한계를 좀 더 잘 설명하는 동시에, 여론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여론 조사 당시의 정황(사건, 연설 등의 요인)도 조사 결과와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한다.

여론 조사 따위는 없어도 괜찮은가?

글쎄, 나는 분명 괜찮지 않다. 직업 정치가나 정치 비평가들도 틀림없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여론 조사는 정치체(body politic)의 가장 깊은 생각, 감정, 편견, 가치관, 행동 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여론 조사 기관에서 일했던 세월 동안 내가 알게 된 사실은 일부 개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은 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그 야말로 틀린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는 있지만, 미국 국민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언제나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여론 조사에 대한 응답을 할 때-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때- 틀린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찰리 쿡, 제리 해그스트롬과의 인터뷰



사진 제공: © CORBIS/epa/손
2006년 11월 7일 화요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열린 2006년 중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08년 미국 대선은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국가원수직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다르다. 국제정보프로그램사무국(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소속 작가인 미셸 오스테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두 명의 전문가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논하고 그 밖에 2008년 선거철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조망한다. 찰리 쿡은 쿡 정치 보고서(Cook Political Report)의 에디터 겸 발행인이며 제리 해그스트롬은 내셔널 저널(National Journal)의 기고가 겸 에디터이다.

질

문: 미국 국민들과 전세계인들이 2008년 대선에 일찍부터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와 이번 대선이 기존의 선거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쿡: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출마하지 않는 선거는 8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두 정당 모두가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열린 선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은 당의 지명을 쉽게 얻게 마련인 현직 대통령이나 부통령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를 한 당에서 세우고, 다른 당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큰 판을 벌이게 되지요. 이번에는 양당 모두가 큰 판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선거 주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해그스트롬: 이번 선거는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누가 후보가 될지도 불투명하고, 누가 선거에서 최종 승리를 거둘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질문: 과거 선거 때보다도 일찍부터 후보자들이 자금 모금에 나섰



사진 제공: © AP Images/앨런 디아즈
2007년 9월 플로리다주 코랄 게이블스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 선거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후보 출마자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현직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룩: 예전보다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30년 전만 해도 텔레비전 네트워크 세 개만 장악하고 있으면 거의 모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죠. 지금은 케이블에 위성방송은 물론 수백 개가 넘는 채널까지 생겨났고 그 밖의 다른 매체들도 많기 때문에 표심을 잡기가 더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해그스트롬: 아주 여러 해 전에는 큰 행사장이나 큰 공장 등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곤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이제 미국인들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큰 행사에도 모습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게 광고를 하자면 돈이 들지요.

룩: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후보자, 즉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하지 않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 선거에서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그스트롬: 후보자 선출을 할 때 예비 선거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불쑥 후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당 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야만 지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비 선거가 있기 전에 당원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자금, 인맥, 시간이 필요합니다.

질문: 올해 출마하는 후보들은 미국 역사상 가장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번 선거철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앞으로 있을 선거에 어떤 선례가 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그스트롬: 글썄요, 제 생각에 한 가지 이유는 사회가 진화하면서 다양성을 띠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0, 30년 전 같으면 이런 후보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룩: 올해 초에 있었던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의 94퍼센트가 흑인 후보자라도 자격이 충분하면 선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88퍼센트는 자격을 갖춘 여성 후보자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8년, 12년, 16년, 혹은 20년 전이라면 이런 통계는 나올 수가 없었겠지요.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보다 더욱 다양화되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성 출마자가 나온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흑인이 대선

에 출마한 사례도 있기는 했지만 별반 가능성이 없는 출마였지요.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이 미국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질문: 많은 미국인들이 이번 선거의 주제는 이라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이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룩: 이라크가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2008년 가을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요. 경제 상황도 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 지구 온난화도 드디어 대두되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20, 30년 동안 애를 써온 이슈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가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슈가 아닌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해그스트롬: 결국 대선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후보의 인격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이지요.

질문: 대부분의 주에서 예비 선거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많은 주에서 2월 5일에 선거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선거 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룩: 글썄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주에서 2월 5일로 예비 선거일을 앞당긴 것은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너무

**[후보]는
지명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오랜
당내 활동경력을
지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많은 주들이 다같이 날짜를 앞당겨 버렸으니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50개 주 중에서 가장 큰 주들을 포함하여 21, 22, 23개 주가 같은 날 투표를 실시하면 개개의 주가 특별한 관심을 끌기는 좀 힘들겠지요. 제 생각에는 2월 5일이 되기 전이나 혹은 예비 선거가 있는 일주일 후 정도면 누가 후보가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선거 운동이 잠시 휴지기에 들어서겠죠. 두세 달 정도는 다른 일들에 초점이 맞추어지다가 선거 유세에 다시 불이 붙고 11월 유세까지 그 여세가 지속될 것입니다.

해그스트롬: 지금 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2월 5일 예비 선거 전에 벌어질 아이오와 주 당간부 회의와 뉴햄프셔주 예비 선거가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후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후보에게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번 선거철에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룩: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인격있는 대통령, 혹은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4년간 누구를 거실로 초대하여 텔레비전 수상기를 통해 만날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유권자들은 대통령이 직면할 많은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문제는 누구를 보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결정을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해그스트롬: 유권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선거철이 다가왔을 때 중요한 한 가지 이슈는 이라크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압도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주제가 대두될 수도 있겠지요.

질문: 2008년 대선이 미국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해그스트롬: 민주당 후보들은 대이라크 정책에 변화를 주겠다고 말하는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할지에 대해 현시점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룩: 미국의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얼굴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질문: 투표율 증가 여부에 대해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룩: 지난 6-8년간 투표율이 꾸준히 증가해온 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라는 말을 흔히 하곤 했지요. 이제 그런 말은 더 이상 듣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테러든 전쟁이든 빈곤이든 카트리나 폭풍이든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깨닫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투표율에 대해 이런 저런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정한 비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보면 시, 군, 주, 연방 선거, 예비 선거, 총선, 어떤 때는 재투표, 특별 선거까지 정말 다양한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더 많은 투표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내에 선거직 직책 수만 해도 60만 개가 넘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더 많은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비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투표 횟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선거에 분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해그스트롬: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도 깨닫고 있으며, 유권자들에게는 투표에 참여하려는 열의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문제는 누가 후보자가 되며 각 정당의 선거 진영이 지명된 인물을 선출할 의향이 정말로 있느냐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특히 인터넷상의 비공식적인 논의들을 보면 신기술이 후보자에 대한 논의에서 더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 유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룩: 전반적인 선거 유세 예산을 보면 전보다 늘기는 했지만 아직도 예산의 아주 아주 작은 부분만이 신기술 분야에 할애되어 있는 것을



사진 제공: 산드라 브루크너
2007년 6월 워싱턴 D.C. 소재 미 국무부를 방문한 찰리 룩(좌)과 제리 해그스트롬.



사진 제공: © AP Images/빌 사이크스
 2007년 9월 더햄 소재 뉴햄프셔 대학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 토론에 참가한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자들. (좌측부터) 톰 탄크레도, 론 폴, 마이크 허커비, 루디 줄리아니, 미트 롬니, 존 맥케인, 샘 브라운백, 던칸 헌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그스트롬: 인터넷은 지지자를 모으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자금 모금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설득에는 좋은 도구가 아닙니다. 한 가지 예외라면 인터넷상의 시각 매체인 유튜브의 발달을 들 수 있겠지요.

이제는 모든 선거 유세장에서 카메라 한 대를 들고 반대편 후보를 따라다니는 젊은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후보의 인격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후보자가 긴장을 늦추고 있는 틈에 그의 진면목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긴장을 늦춘 순간에 후보자는 친근한 청중을 대상으로 속내를 드러냅니다. 모든 후보의 모습을 항시 촬영하여 실수가 발견되는 즉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기술 발전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적나라한 행위입니다. 유권자들

이 후보의 그런 면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선거 유세의 중요한 일부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질문: 미국 선거에서 대선 결과는 결국 몇 개 주의 부동표로 결정



사진 제공: © AP Images/웨인 맥콤버
 콜로라도 주 비밀 시에서 열린 공화당 선거 모임에서 2004년 11월 선거 개표 결과가 발표를 지켜보는 선거인단이 기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거직

잘 알려진 미국 속담 중에 ‘들개 포획인으로도 뽑힐 인물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도무지 선출될 가망이 없는 후보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 미국에서 들개 포획인은 선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부 지방에서만 드물게 볼 수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이 속담은 그저 은유적 표현이라고만 생각하면 되겠다. 실제로 지방 의회의 선거직 공무원들은 들개 포획인을 고용하는데, 유권자들이 후보 자격 요건을 심사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거직 공무원 선발시 유권자들이 마음에 드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기회는 많이 있다.

미국은 단일 연방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로서 50개 주정부 아래에 30만 명이 넘는 선거직 공무원들이 지방 정부(군, 시, 읍) 및 학교 지역, 상수도 지역 등 20만 개에 가까운 특수 목적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뿐 아니라 주 입법의원, 주지사, 부지사, 주 감사관, 구 의원, 읍장과 시장, 구청장, 판사, 경관, 행정 장관, 군 보안관, 치안 판사, 학교 이사회, 대학 위원회, 공공 시설 위원회, 그 밖에 대중의 신뢰를 필요로 하는 다른 여러 직위에 대한 선거에도 참여해야 한다.

좀 더 독특한 선거직으로는 군 검시관, 수도 관개 구역 및 지역 묘지 위원회, 수목 감시원, 지역 공공 용지의 해로운 수목 제거 담당관 등이 있다.

되고 민주당이나 공화당 중 어느 당을 찍을지 모를 몇 개 주에만 해마다 반복해서 선거 유세가 집중되는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예년과 똑같은 몇 개 주에 유세가 집중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추가 떠오를까요?

쿡: 대체로 같은 주에 집중될 것입니다. 2000년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의 선거 때와 2004년 조지 W. 부시와 존 케리의 선거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사이 지지당을 바꾼 주는 나라 전체에서 세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앨 고어는 뉴멕시코와 아이오와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뉴햄프셔에서는 패배했고, 존 케리는 뉴햄프셔에서 승리를 거둔 반면 뉴멕시코

와 아이오와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민주당이 남서부 주 일부에서 지지율을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 극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으며 공화당이 강세를 보였던 뉴햄프셔도 보수적 성향이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민주당의 힘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 주에서는 민주당이 세를 잃고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루이지애나가 그 예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투표 패턴도 변화를 보이면서 민주당의 입지가 약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곳이 민주당의 안전한 표밭이었지요.

해그스트롬: 이번 선거에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지방 유권자들을 둘러싼 치열한 접전입니다. 농어촌 지방은 원래 공화당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고 2006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민주당도 꽤 선전을 한 바 있습니다.

질문: 2000년 이후 여러 주에서 선거 집행 방법을 연구하느라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것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쿡: 2004년 투표율은 2000년보다 높았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중간 선거 때에도 투표율이 상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권자 선거 행정 절차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로 인해 시스템에 많은 결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기극은 아닙니다.

미국 국민들이 투표 집계 및 선거 행정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진정으로 훌륭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을 테지만, 교육, 의료, 전 세계에 대한 해외 원조 의무 등 다른 중요한 부문을 희생하면서까지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에는 선거 집계의 대부분이 정확성 근처에도 가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선거 집계예 예산 책정시 높은 우선순위를 둔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해그스트롬: 선거 과정이 가지각색인 데 대해 그토록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선거 제도를 주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연방 정부는 큰 문제가 발생할 때에만 관여를 합니다. 그러나 주 또는 군 별로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미국 남부의 주에서 흑인의 투표를 막는 전통입니다. 투표권을 제한하는 시스템으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제도로 인해 어떤 사람의 투표를 막으려 한다면 이에 대한 저항이 생깁니다. 미국처럼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나라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 선거 자금은 어떻게 조달될 것인가

잔 위틀드 바란



사진 제공: © AP Images/ 키이치로 사토
오하이오 마운트 길르앗에서 선거운동 중인 상원 후보 사로드 브라운이 한 카페에서 유권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공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은 전문학
적인 자금을 모금해야 하고, 선거자금의 모금과 지출은 미 정부에 의
해 엄격히 규제 된다. 선거법 전문가 잔 위틀드 바란은 선거캠프 기
부 관련 법률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선거캠프가 지출을 결정
하는지, 대선관련 개인 및 공적 자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필자는
워싱턴의 윌리 레인 LLP 로펌의 파트너이며, 폭스 뉴스, 내셔널 퍼블
릭 라디오 및 ABC 뉴스 진행자이자 법률 분석가이다.

2007년 여름, 24명 가까운 후보자들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대선은 2008년 11월 4월에 시작되
지만, 주요정당 즉,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명을 얻기 위해 후보
들은 이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2008년 여름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하지만, 후보자들은 2008년 1월 시작되는 예비
선거에서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해 선거운동을 시작해야만 한다. 이
길고 험한 장정은 숙련되고, 회복력이 좋으며, 지칠 줄 모르는 후보

자를 요구한다. 또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한다.

대통령과 상원 및 하원 의원은 연방정부의 공직자이다. 이들은 선거
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로서 백악관, 상원 및 하원을 구성한다. 이 공
직을 구성하기 위한 선거는 연방법에 의해 규제되며, 이는 선거캠프
가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의 자금을, 어떻게 모금하는지에 대해 규율하
고 있다. 연방선거자금법은 주지사, 시장 및 주 입법기관 등의 주(州)
및 지방 공직선거를 관할하는 주법으로부터 분리되어있다. 따라서
연방정부 공직 선거 후보자는 연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당 법은 꽤나
복잡하고 제한적이다.

후보자는 1억이 넘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수억 달러 모금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후보자의 모금과
지출 방식은 엄격하게 규제된다.



사진 제공: © AP Images/ 루시 페모니
 하와이 공화당 위원장 샘 아이오나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자금 및 감독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선거캠프의 구성

대선후보자는 정치위원회(political committee)라고 불리는 선거캠프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정치위원회는 회계담당자가 있어야 하며,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등록해야 한다. 그 명칭과는 동떨어지지만,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을 감독하고, 집행할 뿐, 선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다. 미국에서 유권자 등록, 선거의 실시 및 득표 수 집계 과정은 주정부와 지방선거관리위원들의 몫이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정치위원회가 등록되어 있다. 후보자와 더불어 정당도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당위원회를 등록해야 한다. 기업, 노동조합, 동업조합의 구성원을 포함한 그 어떤 사적 단체라도 정치행동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정치위원회는 종종 정치행동위원회(PACs)라고 불리며, 이들 또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일단 등록된 정치위원회는 선거자금 모금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모든 선거자금은 지출내역과 함께 분기 혹은 월 단위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 보고된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에 공개되며, 연방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ec.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많은 사적 단체는 후보자, 정당 및 정치활동위원회의 기부금 및 지출내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기부금의 합법적 출처

기부금은 오직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위원회나 개인으로부터 모금할 수 있다. 기업 혹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기부는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기업 혹은 노동조합은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치행동위원회는 후원할 수 있다. 정치활동위원회에 1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미국 영구 거주 허가를 받지 않은 비시민권자 즉, "외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영구거주를 허락 받은 외국 시민은 투표권은 없지만, 기부는 가능하다.

기부금에 대한 제한

개인 혹은 정치위원회의 기부금은 여러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은 2300 달러 이상 한 후보자 선거캠프에 기부할 수 없다. 이 제한은 "한 선거당"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은 예비선거 시 최대 2300 달러를 기부할 수 있으며, 본선거 시 같은 후보에 다시 최대 2300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다. 부부는 각 개인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선거당 기부한도의 2배, 즉 4600 달러까지 공동으로 기부할 수 있다.

한 후보(및 여타 위원회)에 대한 기부한도와 함께 개인은 또한 "총" 기부금 제한을 받는다. 개인은 연방선거 후보자 및 정치위원회에 선거가 있는 때 2년마다 10만 8천 2백 달러 이상을 기부할 수 없다. (2년 주기로 이 제한은 부동자금의 이상(異常) 증가를 설명하는 인플레이션 증가에 따라 조정된다.)

정치활동위원회는 후보 선거캠프에 매 선거당 5000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다. 정당에 기부될 수 있는 이 금액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정치활동위원회가 개별 후보에 기부하는 기부한도보다는 더 높다.

따라서, 가령 2천 3백만 달러의 선거기금-대선운동에 비교적 적절한 선거자금을 모금하기를 원하는 대선후보는 2천 3백 달러의 기부한도를 가진 개인과 5천 달러 제한을 받고 있는 정치위원회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2천 3백만 달러를 모금하기 위해서 후보자는 기부한도액만큼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자를 최소한 천 명은 필요로 한다. 따라서 후보자는 수천 명의 기부자를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대부분 기부한도보다 적은 금액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 제공: © AP Images/ 데미안 도바게인즈
캘리포니아 주 53번째 하원의원 선거구 후보 마이크 골든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과 전략을 토론 중이다.

선거운동 지출내역

선거운동을 위해서 후보자는 직원 고용, 사무실 공간과 출장 준비, 성명서 발행, 라디오 텔레비전, 출판물, 인터넷을 통한 홍보, 수많은 공식식상 및 선거자금 모금 후원회 참석 등의 일을 해야 한다. 하원 후보자는 특정 하원의원선거구에서 이런 활동을 담당하는 반면 상원 후보는 자신의 선거구, 즉 주 전역에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한다.

대선주자는 각 주에서 선거캠프를 구성하고, 후 지명을 받는다면 미국 전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버거운 임무를 맡는다. 대선 선거운동 초기 목표-정당의 지명-는 최초 예비선거가 열리는 주에서 승리에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후보자는 2008년 1월 코커스, 즉 예비선거가 이루어지는 아이오와, 뉴햄프셔, 사우스 캐롤라이나, 네바다 및 플로리다주에서 조직화를 꾀할 것이다. 과거 다른 주들은 6월에 예비선거를 열었다. 하지만, 2008년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주와 같은 주요 주들이 예비선거를 2월 5일에 연다. 이처럼 대폭 단축된 선거일정은 대선캠프에 예비선거 활동에 필요한 상당한 자금-일부의 견해에 따르면 최소 1억 달러-을 모금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된다. 캠프 위원회는 그들의 입출 내역을 연방선거관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모금액과 지출내역은 공문서상에 기록해야 할 사항이다. 이 보고서들, 특히 2007년과 2008년의 보고서는 "재정 예비선거(the money primary)"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실제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후보자가 얼마나 지지를 받았는가를 판단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선거운동 공영자금

1976년 이후 대선후보자는 공영자금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고, 미 연방정부는 자격 있는 선거캠프에 자금을 지원했다. 2000년 선거까지 모든 대선 지명 후보자는 일정금액 이상을 지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조건으로 공영자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제도의 지출한도-주요 후보자가 민간으로부터 쉽게 모금할 수 있는 금액보다 적다-가 턱없이 낮아 후보자들은 더 이상 이 제도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2000년 당시 주지사 조지 W. 부시는 예비선거에서 공영자금을 받지 않는 첫 유력후보자가 됐다. 4년 후 부시 대통령(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존 케리 상원의원과 하워드 딘 주지사도 예비선거에서 공영자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2008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존 에드워즈를 제외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모든 주요 후보자들이 처음으로 공영자금 제도를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지명자들은 본선거 운동 기간에도 공영자금 제도를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얼마가 지출될 것인가?

선거캠프들이 2008년에 얼마를 지출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금이 사용될 것이라는 예상을 해도 무방할 것이다. 2004년 부시 대통령은 예비선거에서 2억 7천만 달러를 모금했고, 본선을 위해 7천 5백만 달러의 연방자금을 받았다. 부시 대통령과 최종 경합을 벌인 존 케리 상원의원은 부시에 조금 못 미치는 3억 2천 5백만 달러를 예비선거에서 모금했고, 본선을 위해 부시와 같은 7천 5백만 달러의 연방자금을 받았다. 2008년 후보자는 늘어났고, 기부한도도 늘었다(2004년 2천 달러에서 2천 3백 달러로 증가). 또한 선거캠프에 기부하는 미국인의 수도 늘어났다. 이는 선거캠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기부의 편리성으로 인해 촉진되었다.

후보자뿐 아니라, 정당, 정치활동위원회 및 여타 이익단체도 돈을

지출할 것이다. 2004년 감응정치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는 연방정부 공직 후보자, 정당 및 기타 기관이 당해 선거 운동을 위해 39억 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2000년 선거운동 비용보다 30퍼센트 증가한 비용이다. 2008년에는 선거운동 비용이 다시 한 번 증가할 공산이 크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는 낡고 쓸모 없어졌는가?

두 명의 학자가 선거인단제도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인다. 선거인단제도를 통해 모든 주는 일반투표를 실시한 후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위원을 뽑는다. 로스. K. 베이커는 선거인단제도가 1787년 미 헌법에 의해 채택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선거인단제도 유지를 주장한다. 베이커는 뉴저지 뉴브루즈워크 소재 러트거스대 사회학과 교수이다. 제이미 라스킨은 선거 결과가 일반투표를 반영하도록 선거인단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스킨은 메릴랜드주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주(州)간 일반투표 협약(National Popular Vote Interstate Compact)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사진 제공: © AP Images/ 윌 실링
2004년 12월 콜럼버스 스테이트 하우스에서 열린 기표식에서 오하이오 선거위원 대표단이 기표하고 있다

찬 성

선거인단: 21세기에도 유용하다

로스. K. 베이커

2000년 11월 7일 저녁, 뉴욕 주 상원의원으로 새로 선출된 민주당 힐러리 로덤 클린턴은 맨해튼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 앞에서의 연설을 통해, 워싱턴에 입성하면 대선에서 명확한 승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구태의연하고, 비민주적인 선거인단제도를 폐지하겠노라 서약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상원의원으로 선출한 제도를 구태의연하고

반 대

선거인단제도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일반투표로 바꾸는 계기로 활용하자.

제이미 라스킨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광범위한 정치개혁을 도모하는 것은 미국의 특성이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이와 같은 거론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국가에서 시행되는 선거관행에도 훨씬 못 미치는 우리의 선거관행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를 민주적이라 일컫는다.



사진 제공: ©AP Images/폴 코놀스
아리조나주 수도 피닉스에서 열린 기표소에서 선거위원 투표용지에 주 공식인장을 찍고 있다.

(이 제도는 1789년에 성립됐다) 비민주적(각 주는 인구비율과는 상관없이 2명의 상원으로 대표된다)이라 지적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모든 조항이 현대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미 헌법에 적용한다면, 이처럼 영속적이고 효과적인 통치체제도 사실상 별반 남아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미국헌법은 연방정부가 50개 주와 권력을 분할하는 연방주의 제도를 포함, 비판가들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할만한 요소로 가득하다.

미국이 연방정부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면 훨씬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제정자들은 효율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를 그 무엇보다 중시했고, 권력분립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권력분립의 한 가지 특징은 중앙 혹은 연방정부가 주와 권력을 분할하는 것이다. 미 연방주의의 중요한 양상은 50개 주가 주로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선거인단제도-는 모든 주에 주의 인구비율에 의거, 의석을 차지하는 상원과 하원의 수와 동일한 선거인단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많은 주 일반투표에서 승

이러한 자기만족은 현 선거관행이 비민주적 맥락의 건국 초기 모습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

가장 극적인 예는 모든 주요 민주주의 원칙에 모순되는 복잡한 과정, 즉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미 대통령선거가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역행하는지 생각해보라.

- 다수결원칙 - 이는 비단 대선뿐이 아니다. 다수결원칙은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이지만, 미 대통령은 일반투표의 승자가 아니다. 선거인단제도에 의해 각 주가 임명한 일정수의 선거위원이 선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널리 알려진 2000년 대선 일반투표에서 부통령 앨 고어는 조지 W. 부시 주지사를 일반투표에서 5십만 표 이상의 차이로 이겼지만, 마지막 순간 플로리다주에서의 537표 차이 때문에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일반투표에서의 패자가 선거인단투표에서 승자가 된 경우가 이 외에도 세 번 더 있다. 또한, 일반투표에서 간발의 차이로 패배하는 바람에 백악관 입성에 실패한 아까운 경우도 많다.
-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미국 국민들은 주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은 대통령을 선출한다. 물론, 대부분 국민들은 자신이 대통령을 선출했다고 믿는다.
- 모든 표의 등가성이 준수된다. 하지만, 선거인단제도의 이상한 산술법(주 선거위원에 대한 유권자 비율로 계산)은 델라웨어 혹은 노스다코다의 유권자 1표에 캘리포니아, 텍사스 혹은 뉴욕과 같은 큰 주 유권자의 1표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누가 주 선거위원의 표를 얻을 것인가에 유권자들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바탕으로 표에 가중치를 둔다면, 가중치의 자의성이 달라지면서 각 주별 격차도 훨씬 심화될 것이다. 가령, 2004년도 대선은 유타주의 312,043 표차와 마찬가지로 효력을 지닌 멕시코시티 주의 365 표차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는 선거인단의 임명에 대해 멕시코시티의 1표는 유타주의 수 백 표에 맞먹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투표 유인을 가져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대다수의 유권자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후보들이 각각 자신들의 표밭으로 여기는 주에 속해 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특정당의 표밭인 2/3의 주 보다는 지지가 감소하고 있는 부동(浮動) 주(swing state)로 달려간다. 지난 두 번의 선거기간 공화당과 민주당은 그들의 선거자금 중 99%를 단 16개 주에서 사용하였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70%가 단 5개 주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인들 대부분은 -가장 인구가 많은 4개 주 중 3곳인 텍사스, 뉴욕, 캘리포니아 포함-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및 몇 안 되는 주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의 관람자일 뿐이다. 대부분의 주를 건너 뛴 결과는 소홀히 대한 주에서의 투표율은 낮아졌다. 본선거 부동주 투표율은 거의 70%에 다다

리, 선거인단투표 중 다수투표(현 538표 중 270표)를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

선거인단제도 비판자들은 직선의 단순성을 주장한다. 개별 주에서 총 투표수는 무시하고, 단순히 전국적으로 표를 집계해 대통령을 선언하면 된다. 미국이 직선제를 받아들인다면, 후보자들은 인구가 많은 주에서만 선거운동을 하는 유인을 갖게 되며, 인구가 적은 주는 무시한 채 유권자가 많은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하고자 할 것이다.

선거인단제도는 후보자가 인구가 많은 주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선제하에서 경시될 수 있는 주에서도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후보자가 인구가 많은 12개 주에서만 선거운동을 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후보자가 다른 38개 주를 경시할 완벽한 이유를 가진다는 의미다. 그러나 선거인단제도하에서 후보자가 인구가 많은 12개 주에서만 선거운동을 하고 이길 확률은 매우 낮다.

민주당 대선후보는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주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공화당 후보는 텍사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및 조지아주에서 승리할 것이다. 백악관 입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270개의 선거인단 표를 얻기 위해서 각 후보는 이른바 부동(浮動) 주(swing state)-오하이오, 플로리다 등 정당 성향이 갈리는 주-뿐만 아니라 인구가 적은 주들의 표심 또한 잡아야 한다. 모든 주가 최소 3표의 선거인단 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작은 주 하나라도 경시할 수가 없다.

그 어떤 한 지역도 대통령을 선출할 만한 충분한 선거인단 표가 없기 때문에, 선거인단제도하에서는 지역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낮다. 선거인단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유권자수에 집착하는 반면, 옹호자들은 표의 배분과 이 표가 국내의 여러 지역과 주에서 골고루 나온 것인지를 지적한다.

미국 역사를 통틀어 선거인단제도는 소수정당 혹은 제 3의 정당 후보자가 대선레이스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했다. 현 제도 비판자들은 이것을 부정적 측면이라고 지적할지도 모르나, 양당제는 지금까지 미국을 잘 유지시켜왔다. 미국 정치에 어느 정도 평온을 가져다 줌으로써 양당제는 미국 안정성의 주요 요소가 되어왔다. 본 제도는 극단주의의 생성을 저지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소수당 혹은 후보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주요정당에 소속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극단주의적 후보자는 -1948년 스트롬 서몬드와 그의 인종차별주의적 주권당(States Rights)의 경우와 같이- 일반투표 및 소수 주의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리할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낮다. 선거인단제도하에서는 미국정치에 개혁의 여지는 있지만, 극단주의자는 배격 당한다.

더욱이 선거인단제도가 정치적 극단주의를 좌절시키지만, 인종 및 민족적 소수당은 선거인단 제도하에서 힘을 얻는다. 가령, 라틴 아메리카계는 미국 인구의 약 12%만을 구성하면서 12%에 훨씬 못 미치는 유권자를 형성하고 있다. 직선제하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일부 주에서는 상당한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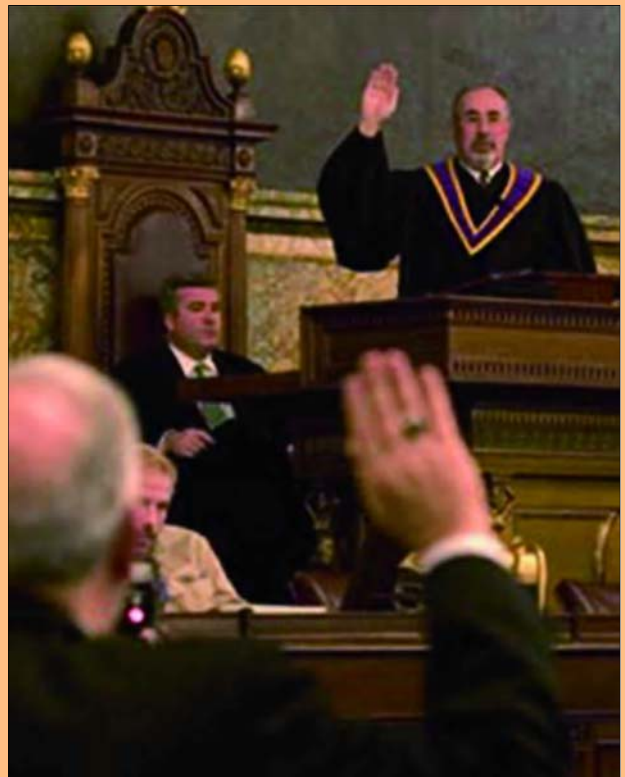


사진 제공: © AP Images/다니엘 셔켄
펜실베이니아 대법원 판사 마이클 이킨이 주 수도인 해리스버그에서 2004년 12월 선거인단 절차에 따라 선서를 받고 있다.

랐지만, 나머지 주 투표율은 50%선에 머물렀고, 이는 미국 투표율을 전세계에게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하면 대통령 선거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론조사 결과, 미국 국민 65% 이상이 자신의 표가 지역과 무관하게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대통령 직선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당파조작에 의해 여러 조각으로 연결된 주(州)만이 아닌, 모든 미국인을 대표하기를 원한다. 문제는 일반투표에 대한 본능적 열망을 토마스 제퍼슨이 헌법상의 오점이라고 일컬었던 문제 많은 제도인 구태의연한 선거인단 제도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메릴랜드주는 어떻게 선거인단 제도를 이용, 대통령 일반투표로 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담하고 역사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2007년 4월 10일 주지사 마틴 오맬리는 메릴랜드주가 각 주의 선거인단표를 전국 일반투표 승리자를 위해 행사하도록 하는 주(州)간 협약(interstate compact)에 가입,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입법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선거인단 과반수(270표)를 구성할 만큼 많은 주에서 법제화되면 발효된다. 메릴랜드주 상 하원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미 12개 주의 회 및 캘리포니아, 하와이, 일리노이 주의 양원에서 승인되었다. 이는 우리의 선거제도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을 갖기에 충분한 인구이다. 아리조나 주의 경우 히스패닉의 인구 비중은 약 25%로, 각 주 평균 비율의 2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계는 대통령 직선제에서보다 선거인단제도 하에서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다. 이처럼 버지니아 주 같이 흑인이 주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주의 정치가들을 더욱 경쟁적으로 만든다.

마지막으로, 연방주의제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헌법 제정자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권력분립을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한 중대한 방어수단이라고 여겼으나, 최근 들어서는 연방정부가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책임이라고 여겨 온 분야에까지 점점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 선거인단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주의 영향력을 한층 더 감소시킨다면 220년간 미국이 직면했던 많은 문제 극복을 가능케 한 정치제도의 주축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개념과 동떨어져있다는 생각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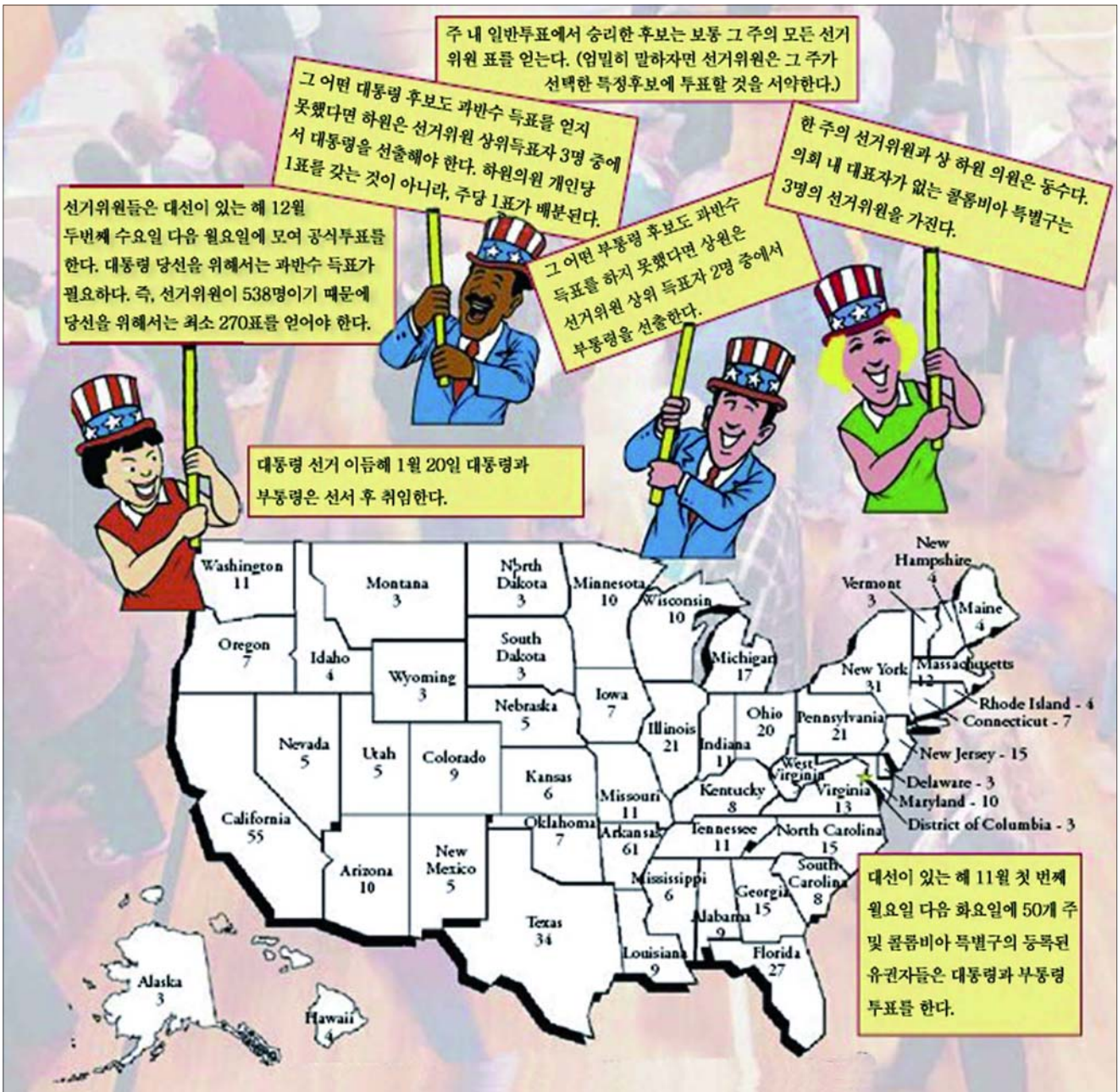
일반투표(National Popular Vote) 계획은 주가 주간(interstate) 협약을 만들고, 유권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법적 권한에 근거하고 있다. 미 헌법 제 2조 1절은 "각 주는 그 주 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수의 선거위원을 임명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각 주 입법기관에 의해 여러 방식으로 이행된다. 국가가 형성되었을 때, 입법기관은 대부분 직접 선거위원을 지명했다. 선거인단제는 계획적 기구로 운영되었고, 선거인단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투표했다. 예를 들어, 1800년 매릴랜드주는 선거위원 중 7명이 아담스에서, 4명이 제퍼슨에서 투표한 것을 확인했다. 주들이 주 전체 일반투표에 기반한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거위원 투표를 시작했을 때, 작은 주들은 이 새로운 단위 블록 투표방식이 그들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불평했다(그리고 그들 생각이 옳았다). 이들은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델라웨어 v. 뉴욕(1996년) 사건에서 대법원은 각 주는 선거인단표를 자기 주에 적합한 방식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점을 강조하며, 소를 기각했다. 주 정부 권한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뉴저지, 텍사스, 유타주까지 입법기관들은 -대부분 선거운동을 관람하는 주들에 의해 주도되어- 미국이 전세계에서 도모해왔으나, 정작 미국 내에서는 결코 실현된 적이 없는 제도를 미국에게 선물하기 위해 그들의 헌법상 권한을 조합, 활용할 수 있다. 그 선물은 바로 다수결 원칙에 의거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통령 선거와, 1인 1표제, 모든 표 가치의 등가성이다. 이 선거제도는 수천만의 기권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우리의 낮은 투표율과 무기력한 민주주의를 소생시킬 것이다. 이는 또한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그들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과 미국의 방식을 조화시킬 것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미국정부의 견해나 정책과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

미국인이 대통령 선거를 하러 투표소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대통령 직선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고 서약한 선거인단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2008 대선 주/연방 구역에 따른 선거위원

참고 문헌

미국 선거 관련 추가 문헌 목록

Bai, Matt. Billionaires, Bloggers, and the Battle to Remake Democratic Politics. New York, NY: Penguin Press, 2007.

Benenson, Bob. Elections A to Z. Washington, DC: CQ Press, 2007.

Black, Earl and Merle Black. Divided America: The Ferocious Power Struggle in American Politics. New York, NY: Simon & Schuster, 2007.

Carroll, Susan J. and Richard L. Fox, eds. Gender and Elections: Shaping the Future of American Politic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Dover, E.D. Images, Issues, and Attacks: Television Advertising by Incumbents and Challengers in Presidential Elections. Lanham, MD: Lexington Books, 2006.

Farnsworth, Stephen J. The Nightly News Nightmare: Television's Coverage of U.S. Presidential Elections, 1988-2004.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7.

Feldman, Jeffrey. Framing the Debate: Famous Presidential Speeches and How Progressives Can Use Them to Change the Conversation (and Win Elections). Brooklyn, NY: Ig Publishing, 2007.

Green, John C., Mark J. Rozell, and Clyde Wilcox, eds. The Values Campaign?: The Christian Right and the 2004 Election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6.

Jarvis, Sharon E. The Talk of the Party: Political Labels, Symbolic Capital, and American Lif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5.

Magleby, David B., Anthony J. Corrado, and Kelly D. Patterson. Dancing without Partners: How Candidates, Parties, and Interest Groups Interact in the Presidential Campaign.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7.

McDonald, Michael P. and John Samples. The Marketplace of Democracy: Electoral Competition and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Cato Institute/Brookings, 2006.

Pfau, Michael, J. Brian Houston, and Shane M. Semmler. Mediating the Vote: The Changing Media Landscape in U.S. Presidential Campaign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7.

Sabato, Larry J. and Howard R. Ernest. Encyclopedia of American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New York, NY: Facts on File, 2006.

Schofield, Norman. Multiparty Democracy: Elections and Legislative Politic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Skinner, Richard M. More Than Money: Interest Group Action in Congressional Election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7.

Stanley, Harold W. and Richard G. Niemi. Vital Statistics on American Politics 2007-2008. Washington, DC: CQ Press, 2007.

Williams, Andrew Paul and John C. Tedesco, eds. Internet Election: Perspectives on the Web in Campaign 2004.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6.

미 국무부는 위에 소개된 자료의 내용과 이용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자료 출처

미국 선거 절차 관련 정보 인터넷 출처

선거 관련 링크 모음

P2008: Race for the White House
<http://www.gwu.edu/~action/P2008.html>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Press Center: Elections 2008
<http://fpc.state.gov/fpc/c21250.htm>

U.S. Department of State: U.S. Elections
http://usinfo.state.gov/dhr/democracy/elections/elections_links.html

U.S. National Archives: U.S. Election & Voting Resources
<http://www.archives.gov/federal-register/electoral-college/links2.html#maps>

Vanderbilt University Elections Links
<http://lib11.library.vanderbilt.edu/diglib/godort.pl?search-text=Elections&Type=Simple&Resource=DB&Website=FD TF>

Voice of America. The Road to the 2008 Election
<http://www.voanews.com/english/US-Elections-2008.cfm>

비디오

Campaign Network - From C-SPAN and Congressional Quarterly
<http://www.campaignnetwork.org/>

ExpertVoter.org: A Video Guide to the 2008 Presidential Candidates
<http://www.expertvoter.org/>

The Living Room Candidate: Presidential Campaign Commercials, 1952-2004
<http://livingroomcandidate.movingimage.us/>

RealClearPolitics Videos - Videos from mainstream news sources
http://video.realclearpolitics.com/video_vault/

RealClearPolitics Vlog - Videos on elections 2008 from YouTube and other sources
http://www.realclearpolitics.com/video_log/

You Choose '08
<http://www.youtube.com/youchoose>

PrezVid: The YouTube Campaign-2008
<http://www.prezvid.com/>

후보자

Presidency 2008 - From Politics1.com
<http://www.politics1.com/p2008.htm>

The Presidential Field: Full Coverage of the 2008 Candidates
<http://projects.washingtonpost.com/2008-presidential-candidates/>

Religion & Politics '08
<http://pewforum.org/religion08/>

청년 투표

Can I Vote?
<http://www.canivote.org/>

CIRCLE: Center for Information and Research on Civic Learning and Engagement
<http://www.civicyouth.org/>

Generation Engage
<http://www.generationengage.org/>

I'm 18 in 08 - Youth voting blog and documentary film
<http://im18in08.blogspot.com/>

여론조사

CBS News Polls
<http://www.cbsnews.com/sections/opinion/polls/main500160.shtml>

The Gallup Poll
<http://www.galluppoll.com/>

The Harris Poll
http://www.harrisinteractive.com/harris_poll/

Los Angeles Times Poll
<http://www.latimes.com/news/custom/timespoll/>

The Pew Research Center for the People and the Press
<http://people-press.org/>

PollingReport.com
<http://www.pollingreport.com/>

RealClearPolitics Polls
<http://www.realclearpolitics.com/polls/Survey>

Survey Research Links
<http://felix.iupui.edu/Links.htm>

Zogby International
<http://www.zogby.com/>

선거관련 주요 언론사 블로그

ABC News: The Note
<http://abcnews.go.com/Politics/>

CBS News: Politics
<http://www.cbsnews.com/sections/politics/main250.shtml>

CNN: The Situation Room
<http://www.cnn.com/CNN/Programs/situation.room/blog/>

Fox News: Update '08
<http://www.update08.foxnews.com/>

MSNBC News: First Read
<http://firstread.msnbc.msn.com/>

National Journal: The Hotline
<http://hotlineblog.nationaljournal.com/>

New York Times: The Caucus
<http://thecaucus.blogs.nytimes.com/>

Washington Post: The Fix
<http://blog.washingtonpost.com/thefix/>

선거유세자금

The Campaign Finance Institute
<http://www.cfinst.org/>

Federal Election Commission: Campaign Finance Law
<http://www.fec.gov/law/feca/feca.shtml>

Office of the Clerk, House of Representatives: Federal Election Campaign Reports
Federal Election Campaign Finance Reports

Project Vote Smart: Campaign Finance
http://www.vote-smart.org/official_five_categories.php?dist=finance.php

Race for the White House: Banking on Becoming President
<http://opensecrets.org/pres08/index.asp>

선거법 출처

The Campaign Legal Center
<http://www.campaignlegalcenter.org/>

Commission on Federal Election Reform
<http://www.american.edu/ia/cfer/>

Election Law @ Moritz (College of Law)
<http://moritzlaw.osu.edu/electionlaw/>

Federal Election Commission: Administering and Enforcing Federal Campaign Finance Laws
<http://www.fec.gov/index.shtml>

Help America Vote Act of 2002
<http://www.fec.gov/hava/hava.htm>

U.S. Constitutional Provisions
<http://www.eac.gov/clearinghouse/u-s-federal-election-system>
(Click on "Constitutional Provisions")

U.S. Department of Justice, Civil Rights Division, Voting Sec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www.usdoj.gov/crt/voting/misc/faq.htm>

Voting Rights Act
<http://www.ourdocuments.gov/doc.php?flash=true&doc=100>

선거인단

Library of Congress: Who Really Elects the President?
<http://www.loc.gov/wiseguide/oct04/election.htm>

U.S. National Archives: Electoral College Calculator
<http://www.archives.gov/federal-register/electoral-college/calculator.html>

U.S. National Archives: U.S. Electoral College
<http://www.archives.gov/federal-register/electoral-college/>

투표기술

Caltech-MIT Voting Technology Project
<http://www.vote.caltech.edu/>

Election Reform Information Project
<http://www.electionline.org>

How E-voting Works
<http://people.howstuffworks.com/e-voting.htm>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Election Directors
<http://www.nased.org/membership.htm>

Vote: The Machinery of Democracy
<http://americanhistory.si.edu/vote/>

Web Sites for the Secretaries of State and/or Directors of Elections
<http://fvap.gov/links/statelinks.html>

모든 인터넷 링크는 2007년 10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Information Resource Center
Public Affairs Section
U.S. Embassy Seoul**

10, Namyoung-dong
Yongsan-gu
Seoul 140-160
Phone: (02) 397-4662
Fax: (02) 795-3606
E-mail: ircseoul@state.gov
Web Site: <http://seoul.usembassy.gov>